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4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월간 제325호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璠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702-2233 | 팩스: 703-9755 | AFS: 000-004 0011
전자·협력·영관 | www.snu.ac.kr



좌로부터 李泰秀대학원장·曹永峻씨·金末順여사·南錫鉉여사·朴喜鵬교수·林光洙회장·金讚洙이사장·吳東英씨·孫一根상임부회장·尹丁華등문

<관리기사 3~4면>

참여·협력·영광의 얼굴... 자랑스럽습니다!



모교에 신입생 3천4백42명 들어와 <관리기사 18면>

관악출주

알뜰 번째 맞는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사회와 모교를 빛나게 한 세 분의 수상자가 났었다.

그동안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인재를 배출 해왔고 그들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이 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 국가발전의 역을 이루는 리더그룹으로 인정 돼왔다. 이렇게 수많은 부문 중에 관악대상 수상자 로 몇 분 선별하는 절차가 무리할 일일지도 모른다. 요즘 각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자립스핀 CEO인' 을 뽑아 대학을 홍보하는 일이 유행처럼 돼있지만 관악대상의 경우 한 차원 다른 시상이라고 본다.

관악대상은 단지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고만 있는

표면적인 성

적표가 아니

고 참여·협

력·영광이요

는 세무 평가에서 공적을 기리고 다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었는지 심도 있는 평가가 있 어서 더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협력부문 수상자인 청아디자인원 金讚洙이사 장이나 모교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朴喜鵬교수는 각 기 국내 의료산업, 국민보건 분야와 모교 실험실 벤 치기업 1호 창업에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을 뿐 아니 라 두 분 다 모교 장학사업에 쾌적해 남다른 모교 애 정을 보인 공통점이 있다.

발자는 10년전 보사총동창회에서 한인 음악회를 현장에서 지휘한 일이 있는데 그날 曹永壽문동의 열

정에 감격한 로마 시민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는 정말로 신이 내린 곡소리의 주인공 이며 영광무분 수상자로 때늦은 상이 있다.

수상한 세 분 각고의 각 분야에 활약하는 동문들 의 세는 더 거둘 수 없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 에서는 서울대의 인재대출이나 그들의 역할에 대해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해해볼까지 나오는 것은 심 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모교의 하·여론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6%가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 나왔다. 간파할 수 없는 것은 '서울대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의견에 60%가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뛰어난 동문들의 활약에 긍지를 가지면서 도 일각의 '관 엘리트' 정지도 느껴야 할 것이다.

서울대 명'브랜드' 세계화하자

세간의 잡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서울 대나 서울대동창회라는 명'브랜드'를 세계화시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과 金在淳명예회 장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건네주셨다. '서울대 동문들이여, 이제는 수변을 배려하는 마음 을 기워라. 그로고 조국과 모교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껴라.'

제7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세 분 동문에게 거듭 축 하를 보낸다.

<4>

일림 본보 제호가 달라졌습니다

서울대동창회보가 창간 29주년을 맞이 4월(제325호)부터 표지 를 새롭게 단장해 눈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간당시 규장각 古文에서 韓字한 字體를 그대로 살리되 현대적 감각에 맞춰 종전의 군형체 미관을 없애고 글자만 군형체으로 변경 하는 등 세련된 디자인 스타일로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꾸민 서울대동창회보가 동문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의 친근한 즐거움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길 바랍니다.

만든 사람: 본설위원 金世洙, 金昌賢, 朴世熙, 林炳斗, 李綱均, 南仲九, 金鎮興, 安炳熙, 丘月姦, 宋銀福,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正福, 李永奎, 高永才,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根, 朴聖媛, 朴勝俊, 金鎮興, 편집부: 安興燮, 편집부: 李宰亨, 表智媛, 金南柱, 황교부장 金斗鶴

느리나무광장

金鑰-헌법재판관이 지난 3월 13일 청문 회답에서 헌법재판소 헌법에 불복하고 헌재를 모독한 정치인에 대하여 고소 고제 비판했다. 2월 12일에는 憲法承繼論에 회답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독립 장악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가했다. 또 宋光烈(宋光烈)의 고소한 권력남용에 대하여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권력남용에 말하는 법관들이 독립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우려하고 사법부 인사가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의 위상을 낙담하기 위하여 모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있는 법정을 위한 신원이라고 하여 난색을 운운하며 헌재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현재 재판관도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헌법에 위반한 법률을 만들었기에 헌법소수자인에서 무한신한 것을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연법

을 모르는 통상적인 국민대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회의원은 원칙 같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침해한 법정보복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항의 반국가단체 찬양죄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정치권에서는 맹렬히 비판하면서 대법관들의 인사를 무효화하고 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물론 국회가 책임질 것이지만 폐지하면 법

사법권의 독립 보장

金 哲 洙

모교 법대 명예교수

본보 논설위원



원은 이를 적용할 수 없으니, 폐지되지 않은 합헌적인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여제 왕가에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보수적이라 하여 이른 기화에 진보적인 인사로 화살탄대하고 있다. 2003년은 대통령 탄핵의 해였으며 2004년은 국회창의의 해로 2005년은 사법부 개혁의 해로, 2006년은 지방의회 제도의 종료 정하여 이후에 진보정당의 20년 계속 집권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5년과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법수 재판관들이 퇴임하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어 있다. 추후 인사가 파격적인 코스로 나가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콘서트까지가 되면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견제균형의 원칙이 일관된 민주주의는 조물주 천지에 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보살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권위하다. 사법부 인사사이라고 코트인사가 폐쇄된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정치가 진정되기를 바란다.

동문칼럼

신행정도시와 백제왕도

최근 신행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위험한 날, 수도분할 사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문화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논의를 거의 없는 것 같다. 신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문화적 보존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신행정도시 예정지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문화재 행정당국에서도 이 예정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사법법률 등 기초적인 사전연구가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

신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인 연기, 공주 권은 신라시대 백제문화의 꽃은 파운 王都였던 공주지역과 상당부분 겹쳐지고 있다. 따라서 백제왕도의 보존과 신행정도시 건설이 양립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왕도지역의 땅속에는 수많은 왕궁과 사찰 등, 그리고 도로, 주택, 유물 등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유네스코의 협약에 가입하여 과거 단일 문화재 보존 지역을 넘어 문화재 전과와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살린 문화유적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다.

우리 나라는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문화유적, 건축물, 유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백제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나마도 정부와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 신원정도사 여정지 2천2백리쯤은 백제왕도와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전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최소한 10여 년 이상의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된다. 우선 신행정도시 추진위원회는 최종적인 지정·고시와 신행정도시 계획상에서 표본적인 문화재 지표조사라도 선행시켜 백제왕도와 백제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0세

기 후반 국내 최대의 고고학적인 발견인 백제 무령왕릉도 공주시의 만 오곡인 송산리 구릉지역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세계 선진 각국들은 문화보존법을 제정하여 옛 문화도시를 보호하고 보존·복원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문화유적이 보이는 5백m 이내에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반 곳만, 수많은 도로와 공간권, 주거시설과 상가, 타미널 시설 등이 들어서는 신행정도시 건설로 권리의 고도를 훼손했다는 후자의 비탄을 반복할까 두렵다. 이세대로는 반석적인 신원정



辛 鉉 雄

(자) 1946-68

연세대 초빙교수

前문화관광부 차관

도시 건설 추진 중에 뜻밖의 문화적인 장에 발견되어 국민의 반대가 낭떠르지 않도록 문화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늦었지만 백제와 신라의 왕도지역을 보존·복원하는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리"라는 미래학자 로버트 프라커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고대 문화유적이 개발과 발전의 논리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문화유산' 운동을 벌이고자 결의한다.

상성과 장애인, 함께 가자!

최근 일본의 넷바(Netba) '상성, 1조엔 이익의 종격'이라는 제목의 사찰에서 상성전자의 시가총액은 6조5천억원으로 일본 최대 전자메이커인 다쓰시타(4조엔)를 훨씬 앞섰으며, 이제 일본 제조업체들 통틀어 상성전자를 앞서는 기업은 모교다 밖에 없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오늘날 이처럼 상성전자가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상성전자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매출을 깎는 내부혁신을 해야 했다. 불황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약 5백억원에 해당하는 '에나폴' 휴대폰을 폐기하기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계속 최고와 경

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7월10일(월) 상성은 '에나폴'형의 인재를 원천적으로 방한' 적이 있다. 상성은 이렇게 재능 있는 인재의 기를 살려 주고 남다른 발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현재정형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상성은 상성자를 좀더 넓혀 인재들 범위에 장애인까지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신체를 손상받았다고 해서 장애인인 아니다. 신체 일부에 손상을 입었지만, 예를 들어 원손이 없었던다면, 잃어진 원손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오른손에 감사하며, 그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인 것이다.

비로 그라한 '장애인'의 도전정신과 긍정적 인생관, 인간관, 종의성, 품덕은 상성이 '에나폴'을 찾으며 애초는 인재의 특장요소이며, 이 땅의 건강한 장애인들의 공동체 마다이다.

상성전자는 1994년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기치로 2백34억원의 투자액 장애인전문공정 '무공화전자'를 설립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의무는 있었지만, 현재 상성전자기 기두고 있는 화려한 성과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제 장애인들도 상성전자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싶고, 함께 정열을 펼치려고 싶다. '무공화'가 아닌 '상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싶고, 1천% 이상의 상여금을 받는 대열에도 당당하게 끼고 싶은 것이다.

마침 상성은 '나눔'과 '상생'의 윤리정열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함께 가자고도 선언한 적이 있다. 장애인문제 해결에는 기업과 한계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성과물 없이 장애인 복지는 불가능하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세계 초일류기업 상성과 장애인들이 뜨겁게 인사는 보습을 상생해 본다.



朴 殷 秀

(법학) 75-79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이사장

영성적을 올리면은도 "현재의 침묵에 지만 기다리는 연세는 위기이 빠질 수 있으니 5년, 10년 뒤에 무엇을 하려고 삼지 시금부터 준비하자"며 늘 준비를 강조해 왔었다.

상성이 장담하 '사후보급', '할리우드', '인제자일'의 경쟁력으로 시대를 리는 해 온 것은 이미 유명하다. 창업주 박주환(박주환)은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즐겨 했고,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키워서 열매만큼 성과적으로 활용하느냐



3백억 들어 장학빌딩 건립 본격화 본회 林光洙회장 50억 출연 약정

洪性大상임이사도 10억 출연키로...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 스타볼룸에서 각계 동문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 겸 제7회 관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 林 會長은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관외동문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 겸 제7회 관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은 '장학빌딩 건립의 총 소요예산은 3백억원 정도인데, 동창회 7억 1백억원과 본인이 50억원, 洪性大상임이사도 10억원 출연하고 나머지 1백40억원은 전 경문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가 모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요지 참조)

모교 鄭榮業총장을 대신해 李孝泰총대동장은 축사에서 "모교는 관내대상 수상자 세 분께서 보여 주신 것과 같은 수월성을 실현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발전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잊지 않도록 올해부터 관우인연을 위한 봉사활동, 해외 자립의 길잡이 운동과 캠퍼스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부문에 청아리비엔 金淑淑(지리대56·60 분회 부회장)이사장, 협력부문에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朴善載(기계 설계79·83)교수, 영공부문에 신각와 曹秀美(성인입입)동문이 각각 수상했으며, 해외 공헌공인 박동문을 대신해 이날 모친 金永順

여사와 남동생 曹孝峻씨가 참석했다. (공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孫一振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결과보고를 통해 "후보자 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에 추천된 8명과 가정된 운영규정(후보자 추천을 금지하지 않음)에 운영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21명이 선정되어 찬성여에 의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에 따라 추천권 1명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22명이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金在亨회장은 회장의 건의 제의에 이어 모교 중 과외포인트로 자랑되던 본회의 개단법인 관외동문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프리젠테이션했으며, 장학빌딩 건립 경과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2004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朴美惠교수의 감사결과 보고가



관내대상 상패 수여



축하 선물 전달



기념 메달 증정



朴美惠 朴世源교수(사진 좌)와 李孝泰부총장(사진 우)의 축하공연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본회의 2004년도 결산을 승인했다.

모교 경제학부 孫 淳明교수는 신입회원 환영사에서 "최근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활동과 재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지켜보면서 모교가 비단 이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했다"며 "서로 독창성에 입각하는 5천여 명의 동문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뜻을 비로 새워 그 뜻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다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파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崔秉憲(99·05)동문은 담사를 통해 "후배들의 눈높이 되고,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여 세대에서 인정받는 서울대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崔秉憲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공연에서 모교 성악과 朴世源(성악66·72)교수가 사랑의 노래인 팔로브의 '그녀에게 내일 전해 주오'를, 朴美惠(성악79·83)교수가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레' 중 경쾌함이 묻어나는 '부세티의 왈츠'를 신나게 노래를 불렀으며, 앙코르곡으로 버트디의 '속박의 노래'를 부트로 불렀다.

회장 개회사 (요지)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2004년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들 합니다.다, 총동창회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바탕을 마련한 귀중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동창회의 각종 행사에 동문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회비도 예년의 배 이상 납부해주시고 작년 한 해 많은 특기사항과 기적과 찬조금 출연 등으로 동창회 기금이 목표에 훨씬 앞



진했습니다. 저는 모교를 위한 동창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교 재학생의 50%만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학비의 기초가 지축하고 등록금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등으로 장학금 지급의 확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정금리에 의존하는 장학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하는 장학재단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즉, 특기사항으로 내주시 기금의 장학회를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1%를 최고금리로 상으로 지급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장학금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행금리는 3.5% 전후인데, 장학재단을 건설할 경우 적어도 10% 이상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모교에 대한 이득도 큼을 느끼고 동창회의 재정도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학교측의 강력한 권유로 동창회에 모교와 캠퍼스 내로 불어넣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뜻을 받들어 모교의 속인사임인 관내동문센터와 동창회관을 함께 교육회관 자리에 건립하는 안을 학교측과 협의하여 궁극적으로 검토해오던 중 학교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 동창회관 건립이 최후의 안으로 결정되는데에 따라 차에 후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창회관 자리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장학빌딩을 짓고자 계획을 세웠으며, 한 건물을 지게만 이완성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건설부의 유권해설 공문을 받아 한계 건축가능을 위한 토지계획 변경을 우선 중에 있습니다.

이 빌딩이 완공되면 지금의 약 4배, 연간 약 1천여 명에 대해서 20여 명 이상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빌딩 건립의 총 소요예산은 3백억원 정도인데, 동창회 기금 1백억원과 본인이 50억원, 洪性大상임이사님께서 10억원을 출연하오니 나머지 1백40억원을 전 동문들만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출연자였던 본인의 동상 또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 자랑스러워 하고 그 명예에 영구히 장학빌딩에 남겨 두겠습니다.

어는 나니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서울대인이 항상 위치하고 있으므로 저는 늘 우리에게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며, '서울대가 바로 우리 나라의 선택'은 Motto를 어디를 가든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문에 정진하여 국가의 동량지배로서 국가미래에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가 모교와 후배 재학생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책임을 다 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해방하지 못한 이들이여 좀더 나누고 배려해 그들을 살리는 노력이 소모될 수의 삶을 살려야 한다고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대인의 숙명적인 사명감에 더욱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1회 국립극장 한국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가수 겸 영화·음악 감독 李孝泰(국악00·04)동문이 작곡가 '천비'와 합곡 'Without You'를 들려줬다. 특히 李孝泰는 TV드라마 '백성광주' '출발' '소모' '두 번째 프로포즈'의 주제가를 부른 바 있다.

이날 총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두리비전(사장 李孝泰·AMP 43·AIP 137)과 기술진이 행사 중계와 영상물 상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벨트)과 裴信海(의학대 52 동아제약 회장)고 문이 협찬한 음료(바나나스), 李英子(국어교육46·50)동문이 협찬한 비누세트를 받았다. (表)

한 길을 걸으며 모교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청아치과 金讚淑이사장

▲1966년 치과대학 치과외과에 입학해 1960년에 졸업했으며, 1971년 김천속치과병원(현 청아치과병원)을 개원, 35년간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헌신해왔다.

국내 최초로 개인수련기관 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청아치과병원은 그동안 수많은 치과외과를 양성했으며, 현재까지도 치과외과 발전을 위한 우수 논문들이 계속해서 저술

되고 있다.

1995년부터 4년간 치과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체계화 있던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기금을 마련하는데 큰 나날 역할을 담당했으며, 5천만원의 운영 기금을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96년 치과대학 동창회 재임 중 특약연구자금을 1억원을 비롯해 본회에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 '金讚淑특약 장학금'을 통해 후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2002년부터 2년간 경기여고 동창회인 경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자 분회 부회장과 모교 치과

병원 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술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사회가 발달할수록 세대간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획기화된 가정과 세분화된 직장 등으로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는 외로운 삶을 영위하게 됐으나 아무 조건 없이 결속과 진리를 다지는 동창회와 윗대리가 되어준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사회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해준 남편 吳東憲(우동헌)과, 일하느라 집안일에 소홀한 지를 이해해주는 아이들 그리고 치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협력부문 모교 공대 朴喜載교수

▲1979년 공대에 입학해 1983년에 졸업, 본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학내 '실업실 벤처 1호'인 SNU로봇시단 대표를 겸하고 있다.

1988년 창업한 SNU프리스피전은 TFT-LCD 간격을 유지시켜 화질을 좌우하는 미세부품 형성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산출해 내는 '비접촉식 광응용 나노형상 측정장비(PSS)'를 세계 최초로

개발, 현재 8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시장의 약 80%를 석권하고 있다.

관학성계, 페가트론, 나노 미트론, 나노 기반측정 등 4개의 첨단 공학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논문 2백건 발표, 30건의 특허 출원,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여러 개 추진하고 수행하는 등 교수와 이공계 CEO 역할을 모두 훌륭히 해내며 대학의



사회기여 의무를 실천하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했다.

특히 지난 2월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 보유 주식의 10%인 80억원 상당을 모교 공대 교육연구재단에 기부함으로써 모

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박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IMF의 원인 중 하나가 여러 해에 걸친 자본주의와 자유의 핵심부품에 대한 무역적자 투자가라는 사실에 자극 받아 우리 기술로 의욕을 얻어들이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왔다"며 "TFT-LCD 기술 중추적인 일본시장에 처음으로 나노정정기술을 선점해 국내에는 유망시장에서 단 한 대의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교에서 개발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부문 성악가 曹秀美동문

▲1981년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하고 재학 중 이탈리아로 유학, 1986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했다.

1985년부터 각종 국제 콩쿠르대회에 출품해, 30세가 되기 전에 세계 5대 오페라인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비엔나 오페라, 런던 코벤트 가든

오페라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20년간 세계적인 콜로리투르 소프라노로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백여 편의 오페라 프리마돈나로 출연했으며, 수백 회의 독창회와 리사이틀 공연을 통해 한국의 위상과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국제행사의 홍보대사로 명품악보와 국가기타 지 제고에 공헌했다.



조 클래식 문화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서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를 비롯한 동문 행사와 CD제작에 참여하는 등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曹동문은 공연중인 브람스에서 만난 수상소감을 통해 "깊은 교원과 영혼이 없는 노래는 그 누구에게도 감동과 진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李慶復(이경복) 교수님, 누 사립대학교 음악에 조여가 귀스타프 고 엄격한 평론가이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며 "연주초창기 시절, 많은 세계인들이 'Korea'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연 수했고,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주류와 세계화위해 위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가 목	금 액	가 목	금 액
자산		부채	(112,081,350)
1.유동자산	3,272,724,420	1.유동부채	(65,107,088)
(1)당좌자산	4,272,724,420	11.대출금	11,130,409
(2)한글채권	4,108,044,392	20.기타금융	33,736,504
2.비유동자산	0	30.외상채권	0
3.비유동채권	53,817,388	40.채무증권	17,230,785
4.한글채권	0	50.무보증채	(96,921,061)
5.유가증권	2,378,360	11.수입금	500,000
6.계정자산	3,423,940	20.기타금융채권	80,423,081
7.고정자산	94,174,929	1.차입금	4,161,271
1.사유재산	0	11.기타금융	4,161,271
2.전원자산가치	180,000	20.이익잉여금	(4,119,638,439)
3.비준	63,826,636	39.99.이익잉여금	4,119,638,439
4.기타자산	39,920,947	40.이익잉여금	(444,297,645)
합 계	4,276,839,049	합 계	4,276,839,049

손익계산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단위 원)

가 목	금 액	가 목	금 액
1.매출액	4,572,572,900	15.무이자이익	42,768,190
11.공급대금	25,257,400	16.수익금	0
2.매출원가	650,947,349	17.기타수익	452,346
11.간접비용	660,947,249	5.이익잉여금	1,287,769,400
3.매출이익	3,921,625,551	6.이익잉여금	(1,738,867,151)
4.영업이익	69,351,057	11.회전이익	1,389,112,404
11.회전이익	12,823,100	20.이익잉여금	1,764,110,382
2.회전이익	81,299,675	30.이익잉여금	162,189,435
3.회전이익	1,635,384	40.이익잉여금	2,154,830
4.회전이익	3,939,638	5.이익잉여금	17,000,000
5.회전이익	27,578,551	11.이익잉여금	0
6.회전이익	14,566,390	20.이익잉여금	0
7.회전이익	6,357,590	30.이익잉여금	7,000,000
8.회전이익	83,298,988	40.이익잉여금	0
9.회전이익	3,191,176	5.이익잉여금	0
10.회전이익	96,170,370	11.이익잉여금	0
11.회전이익	73,494,672	20.이익잉여금	0
12.회전이익	348,565,927	30.이익잉여금	(444,297,645)
13.회전이익	0	40.이익잉여금	(444,297,645)
14.회전이익	1,772,150		

위와 같이 공고함

2005.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본회·관악회 상임이사회

3개 단기과정 준회원 영입



본회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 총장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46차·관악회 제9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 등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는 지난해 2만1천5백88명의 동문과 6개 해외지부의 참여로 13억9천8백만원의 회비 수입 실적을 올렸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4~5면 하단 참조)

이날 동창회 회칙 제5조제2호(준회원은 전신을 포함한 각 대학(원) 종파자 및 단기 연구교육과정 수료자로 한다)에 따라 공과대학 부설 'IT벤처산업과정', '전통산업 최고조각과정'과 국제대학교원 부설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본회의는 올해 동창회비 10만부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우동문의 반', '여석 동문의 반' 등을 개최해 동문 참여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올해 역점사업인 장학발달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펼칠 예정이며 조경대학교 사업으로 알뜰·중국지부 등 가까운 해외지부를 방문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좌로부터 辛錫鎭·洪性大·林光洙·尹勳煥·孔大權·南仲九·辛東一·孫一根·朴英俊·許瑋壽

장학발달건립위원회

빌딩 건립·운용·모금계획안 내바

본회 장학발달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장학발달 건립·운용·모금계획에 대한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도원 장학발달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현 위치 약 1천6백48㎡에 지상16층 지상 19층(펜트하우스 포함)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林光洙위원은 "내지 북쪽으로 신공원철도 광역연선가 개발될 예정이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장학발달이 공적적 주변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학발달건립위원회는 "모금계획안에 따르면 매년 37억 원의 순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총 임대면적 6천4백평을 평당 임대보증금 45만원, 임대료 4만3천원, 관리비 2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그 밖의 수익금은 장학금 액수를 늘리거나 기부 해외연수 지원, 석좌교수 초빙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洪性大위원은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모금계획과 관련해서는 장학기

금으로 모금해 장학발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장학발달위원은 "조은 돈이라도 모든 동문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1구좌를 10만 원으로 해서 월간 100원씩 모금하는 것으로 많은 동문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액의 후원할 동문을 몰라하는 방법을 병행해 나간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養信浩회장

전경련 회장 재취임 축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8층 메트로폴리탄룸에서 동아제약 養信浩(오호48·52 본회 고문)회장(사진·右)의 전경련 회장 재취임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金信亨·林光洙·尹勳煥·徐廷均·孫一根·崔世中·辛東一·李金熙·李相周·尹俊鎭·金錫徽·孔大權·孫京植·洪性大·南仲九·林英傑·許永範·趙英俊·金英大·許龍·辛錫鎭·林錫俊·梁在鉉·鄭雲龍·李奎堯·金仁奎·朴善載 등 30여 명이 축하인사를 내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4년부터 총동창회 부회장과 고문을 맡아 총동창회를 도모하시는 등 60년대 친근감과 교감음을

본회의는 지난해 2만1천5백88명의 동문과 6개 해외지부의 참여로 13억9천8백만원의 회비 수입 실적을 올렸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4~5면 하단 참조)

본회의는 올해 동창회비 10만부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우동문의 반', '여석 동문의 반' 등을 개최해 동문 참여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올해 역점사업인 장학발달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펼칠 예정이며 조경대학교 사업으로 알뜰·중국지부 등 가까운 해외지부를 방문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문정보학과 대학원

金貳煥회장 선출

연문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회장 金錫鎭)는 지난 3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1교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원(03인)2인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받았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2대 회장에 金貳煥(72·75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2004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2004년 12월 31일 현재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1. 매출액	309,531,000	17. 실비	3,738,090
1. 유동자산	5,140,877,191	1. 유동부채	68,551,069	1. 판매수수료	179,664,000	18. 형소비	1,794,390
(1) 현금·현금성자산	5,140,877,191	2. 장기부채	3,963,079	2. 임대료수입	129,867,000	19. 복귀차입금	280,774,837
2. 유가증권	0	3. 차입금	2,291,980	(1) 매출원가	0	20. V. 장입금	335,258,677
3. 채권·채무	77,673,130	4. 차입금	3,636,930	(2) 매출총이익	309,531,000	21. 장입금	824,913,914
4. 대차대조표	77,673,130	5. 차입금	1,793,000	(3) 매출총이익	644,788,071	22. 장입금	281,294,265
5. 현금	605,000	6. 차입금	34,100,000	3. 판매수수료	102,977,600	23. 장입금	5,389,353
6. 현금성자산	33,665,070	7. 차입금	1,063,247,346	4. 판매수수료	23,435,000	24. 장입금	536,164,000
(2) 장기자산	2,291,980	8. 차입금	1,031,008,844	5. 판매수수료	1,195,000	25. 장입금	62,198
(3) 장기자산	2,291,980	9. 차입금	1,131,798,435	6. 판매수수료	0	26. 장입금	287,549,997
(4) 장기자산	2,291,980	10. 차입금	1,708,855,444	7. 판매수수료	14,260,000	27. 장입금	1,964,248
(5) 장기자산	2,291,980	11. 차입금	1,227,573,978	8. 판매수수료	5,940,000	28. 장입금	291,294,163
(6) 장기자산	2,291,980	12. 차입금	0	9. 판매수수료	6,896,045	29. 장입금	4,676,330
(7) 장기자산	2,291,980	13. 차입금	0	10. 판매수수료	37,675,700	30. 장입금	215,256
(8) 장기자산	2,291,980	14. 차입금	4,383,963,513	11. 판매수수료	47,358,657	31. 장입금	0
(9) 장기자산	2,291,980	15. 차입금	4,383,963,513	12. 판매수수료	38,646,447	32. 장입금	202,111,246
(10) 장기자산	2,291,980	16. 차입금	0	13. 판매수수료	21,295,000	33. 장입금	0
(11) 장기자산	2,291,980	17. 차입금	0	14. 판매수수료	3,960,800	34. 장입금	0
(12) 장기자산	2,291,980	18. 차입금	0	15. 판매수수료	6,006,739	35. 장입금	0
(13) 장기자산	2,291,980	19. 차입금	0	16. 판매수수료	0	36. 장입금	0
(14) 장기자산	2,291,980	20. 차입금	0	17. 판매수수료	15,431,800	37. 장입금	0
(15) 장기자산	2,291,980	21. 차입금	0	18. 판매수수료	54,206,310	38. 장입금	0
(16) 장기자산	2,291,980	22. 차입금	0	19. 판매수수료	0	39. 장입금	0
(17) 장기자산	2,291,980	23. 차입금	0	20. 판매수수료	0	40. 장입금	0
(18) 장기자산	2,291,980	24. 차입금	0	21. 판매수수료	0	41. 장입금	0
(19) 장기자산	2,291,980	25. 차입금	0	22. 판매수수료	0	42. 장입금	0
(20) 장기자산	2,291,980	26. 차입금	0	23. 판매수수료	0	43. 장입금	0
(21) 장기자산	2,291,980	27. 차입금	0	24. 판매수수료	0	44. 장입금	0
(22) 장기자산	2,291,980	28. 차입금	0	25. 판매수수료	0	45. 장입금	0
(23) 장기자산	2,291,980	29. 차입금	0	26. 판매수수료	0	46. 장입금	0
(24) 장기자산	2,291,980	30. 차입금	0	27. 판매수수료	0	47. 장입금	0
(25) 장기자산	2,291,980	31. 차입금	0	28. 판매수수료	0	48. 장입금	0
(26) 장기자산	2,291,980	32. 차입금	0	29. 판매수수료	0	49. 장입금	0
(27) 장기자산	2,291,980	33. 차입금	0	30. 판매수수료	0	50. 장입금	0
(28) 장기자산	2,291,980	34. 차입금	0	31. 판매수수료	0	51. 장입금	0
(29) 장기자산	2,291,980	35. 차입금	0	32. 판매수수료	0	52. 장입금	0
(30) 장기자산	2,291,980	36. 차입금	0	33. 판매수수료	0	53. 장입금	0
(31) 장기자산	2,291,980	37. 차입금	0	34. 판매수수료	0	54. 장입금	0
(32) 장기자산	2,291,980	38. 차입금	0	35. 판매수수료	0	55. 장입금	0
(33) 장기자산	2,291,980	39. 차입금	0	36. 판매수수료	0	56. 장입금	0
(34) 장기자산	2,291,980	40. 차입금	0	37. 판매수수료	0	57. 장입금	0
(35) 장기자산	2,291,980	41. 차입금	0	38. 판매수수료	0	58. 장입금	0
(36) 장기자산	2,291,980	42. 차입금	0	39. 판매수수료	0	59. 장입금	0
(37) 장기자산	2,291,980	43. 차입금	0	40. 판매수수료	0	60. 장입금	0
(38) 장기자산	2,291,980	44. 차입금	0	41. 판매수수료	0	61. 장입금	0
(39) 장기자산	2,291,980	45. 차입금	0	42. 판매수수료	0	62. 장입금	0
(40) 장기자산	2,291,980	46. 차입금	0	43. 판매수수료	0	63. 장입금	0
(41) 장기자산	2,291,980	47. 차입금	0	44. 판매수수료	0	64. 장입금	0
(42) 장기자산	2,291,980	48. 차입금	0	45. 판매수수료	0	65. 장입금	0
(43) 장기자산	2,291,980	49. 차입금	0	46. 판매수수료	0	66. 장입금	0
(44) 장기자산	2,291,980	50. 차입금	0	47. 판매수수료	0	67. 장입금	0
(45) 장기자산	2,291,980	51. 차입금	0	48. 판매수수료	0	68. 장입금	0
(46) 장기자산	2,291,980	52. 차입금	0	49. 판매수수료	0	69. 장입금	0
(47) 장기자산	2,291,980	53. 차입금	0	50. 판매수수료	0	70. 장입금	0
(48) 장기자산	2,291,980	54. 차입금	0	51. 판매수수료	0	71. 장입금	0
(49) 장기자산	2,291,980	55. 차입금	0	52. 판매수수료	0	72. 장입금	0
(50) 장기자산	2,291,980	56. 차입금	0	53. 판매수수료	0	73. 장입금	0
(51) 장기자산	2,291,980	57. 차입금	0	54. 판매수수료	0	74. 장입금	0
(52) 장기자산	2,291,980	58. 차입금	0	55. 판매수수료	0	75. 장입금	0
(53) 장기자산	2,291,980	59. 차입금	0	56. 판매수수료	0	76. 장입금	0
(54) 장기자산	2,291,980	60. 차입금	0	57. 판매수수료	0	77. 장입금	0
(55) 장기자산	2,291,980	61. 차입금	0	58. 판매수수료	0	78. 장입금	0
(56) 장기자산	2,291,980	62. 차입금	0	59. 판매수수료	0	79. 장입금	0
(57) 장기자산	2,291,980	63. 차입금	0	60. 판매수수료	0	80. 장입금	0
(58) 장기자산	2,291,980	64. 차입금	0	61. 판매수수료	0	81. 장입금	0
(59) 장기자산	2,291,980	65. 차입금	0	62. 판매수수료	0	82. 장입금	0
(60) 장기자산	2,291,980	66. 차입금	0	63. 판매수수료	0	83. 장입금	0
(61) 장기자산	2,291,980	67. 차입금	0	64. 판매수수료	0	84. 장입금	0
(62) 장기자산	2,291,980	68. 차입금	0	65. 판매수수료	0	85. 장입금	0
(63) 장기자산	2,291,980	69. 차입금	0	66. 판매수수료	0	86. 장입금	0
(64) 장기자산	2,291,980	70. 차입금	0	67. 판매수수료	0	87. 장입금	0
(65) 장기자산	2,291,980	71. 차입금	0	68. 판매수수료	0	88. 장입금	0
(66) 장기자산	2,291,980	72. 차입금	0	69. 판매수수료	0	89. 장입금	0
(67) 장기자산	2,291,980	73. 차입금	0	70. 판매수수료	0	90. 장입금	0
(68) 장기자산	2,291,980	74. 차입금	0	71. 판매수수료	0	91. 장입금	0
(69) 장기자산	2,291,980	75. 차입금	0	72. 판매수수료	0	92. 장입금	0
(70) 장기자산	2,291,980	76. 차입금	0	73. 판매수수료	0	93. 장입금	0
(71) 장기자산	2,291,980	77. 차입금	0	74. 판매수수료	0	94. 장입금	0
(72) 장기자산	2,291,980	78. 차입금	0	75. 판매수수료	0	95. 장입금	0
(73) 장기자산	2,291,980	79. 차입금	0	76. 판매수수료	0	96. 장입금	0
(74) 장기자산	2,291,980	80. 차입금	0	77. 판매수수료	0	97. 장입금	0
(75) 장기자산	2,291,980	81. 차입금	0	78. 판매수수료	0	98. 장입금	0
(76) 장기자산	2,291,980	82. 차입금	0	79. 판매수수료	0	99. 장입금	0
(77) 장기자산	2,291,980	83. 차입금	0	80. 판매수수료	0	100. 장입금	0
(78) 장기자산	2,291,980	84. 차입금	0	81. 판매수수료	0	101. 장입금	0
(79) 장기자산	2,291,980	85. 차입금	0	82. 판매수수료	0	102. 장입금	0
(80) 장기자산	2,291,980	86. 차입금	0	83. 판매수수료	0	103. 장입금	0
(81) 장기자산	2,291,980	87. 차입금	0	84. 판매수수료	0	104. 장입금	0
(82) 장기자산	2,291,980	88. 차입금	0	85. 판매수수료	0	105. 장입금	0
(83) 장기자산	2,291,980	89. 차입금	0	86. 판매수수료	0	106. 장입금	0
(84) 장기자산	2,291,980	90. 차입금	0	87. 판매수수료	0	107. 장입금	0
(85) 장기자산	2,291,980	91. 차입금	0	88. 판매수수료	0	108. 장입금	0
(86) 장기자산	2,291,980	92. 차입금	0	89. 판매수수료	0	109. 장입금	0
(87) 장기자산	2,291,980	93. 차입금	0	90. 판매수수료	0	110. 장입금	0
(88) 장기자산	2,291,980	94. 차입금	0	91. 판매수수료	0	111. 장입금	0
(89) 장기자산	2,291,980	95. 차입금	0	92. 판매수수료	0	112. 장입금	0
(90) 장기자산	2,291,980	96. 차입금	0	93. 판매수수료	0	113. 장입금	0
(91) 장기자산	2,291,980	97. 차입금	0	94. 판매수수료	0	114. 장입금	0
(92) 장기자산	2,291,980	98. 차입금	0	95. 판매수수료	0	115. 장입금	0
(93) 장기자산	2,291,980	99. 차입금	0	96. 판매수수료	0	116. 장입금	0
(94) 장기자산	2,291,980	100. 차입금	0	97. 판매수수료	0	117. 장입금	0
(95) 장기자산	2,291,980	101. 차입금	0	98. 판매수수료	0	118. 장입금	0
(96) 장기자산	2,291,980	102. 차입금	0	99. 판매수수료	0	119. 장입금	0
(97) 장기자산	2,291,980	103. 차입금	0	100. 판매수수료	0	120. 장입금	0
(98) 장기자산	2,291,980	104. 차입금	0	101. 판매수수료	0	121. 장입금	0
(99) 장기자산	2,291,980	105. 차입금	0	102. 판매수수료	0	122. 장입금	0
(100) 장기자산	2,291,980	106. 차입금	0	103. 판매수수료	0	123. 장입금	0
(101) 장기자산	2,291,980	107. 차입금	0	104. 판매수수료	0	124. 장입금	0
(102) 장기자산	2,291,980	108. 차입금	0	105. 판매수수료	0	125. 장입금	0
(103) 장기자산	2,291,980	109. 차입금	0	106. 판매수수료	0	126. 장입금	0
(104) 장기자산	2,291,980	110. 차입금	0	107. 판매수수료	0	127. 장입금	0
(105) 장기자산	2,291,980	111. 차입금	0	108. 판매수수료	0	128. 장입금	0
(106) 장기자산	2,291,980	112. 차입금	0	109. 판매수수료	0	129. 장입금	0
(107) 장기자산	2,291,980	113. 차입금	0	110. 판매수수료	0	130. 장입금	0
(108) 장기자산	2,291,980	114. 차입금	0	111. 판매수수료	0	131. 장입금	0
(109) 장기자산	2,291,980	115. 차입금	0	112. 판매수수료	0	132. 장입금	0
(110) 장기자산	2,291,980	116. 차입금	0	113. 판매수수료	0	133. 장입금	0
(111) 장기자산	2,291,980	117. 차입금	0	114. 판매수수료	0	134. 장입금	0
(112) 장기자산	2,291,980	118. 차입금	0	115. 판매수수료	0	135. 장입금	0
(113) 장기자산	2,291,980	119. 차입금	0	116. 판매수수료	0	136. 장입금	0
(114) 장기자산	2,291,980	120. 차입금	0	117. 판매수수료	0	137. 장입금	0
(115) 장기자산	2,291,980	121. 차입금	0	118. 판매수수료	0	138. 장입금	0
(116) 장기자산	2,291,980	122. 차입금	0	119. 판매수수료	0	139. 장입금	0
(117) 장기자산	2,291,980	123. 차입금	0	120. 판매수수료	0	140. 장입금	0
(118) 장기자산	2,291,980	124. 차입금	0	121. 판매수수료	0	141. 장입금	0
(119) 장기자산	2,291,980	125. 차입금	0	122. 판매수수료	0	142. 장입금	0
(120) 장기자산	2,291,980	126. 차입금	0	123. 판매수수료	0	143. 장입금	0
(121) 장기자산	2,291,980	127. 차입금	0	124. 판매수수료	0	144. 장입금	0
(122) 장기자산	2,291,980	128. 차입금	0	125. 판매수수료	0	145. 장입금	0
(123) 장기자산	2,291,980	129. 차입금	0	126. 판매수수료	0	146. 장입금	0
(124) 장기자산	2,291,980	130. 차입금	0	127. 판매수수료	0	147. 장입금	0
(125) 장기자산	2,291,980	131. 차입금	0	128. 판매수수료	0	148. 장입금	0
(126) 장기자산	2,291,980	132. 차입금	0	129. 판매수수료	0	149. 장입금	0
(127) 장기자산	2,291,980	133. 차입금	0	130. 판매수수료	0	150. 장입금	0
(128) 장기자산	2,291,980	134. 차입금	0	131. 판매수수료	0	151. 장입금	0
(129) 장기자산	2,291,980	135. 차입금	0	132. 판매수수료	0	152. 장입금	0
(130) 장기자산	2,291,980	136. 차입금	0	133. 판매수수료	0	153. 장입금	0
(131) 장기자산	2,291,980	137. 차입금	0	134. 판매수수료	0	154. 장입금	0
(132) 장기자산	2,291,980	138. 차입금	0	135. 판매수수료	0	155. 장입금	0
(133) 장기자산	2,291,980	139. 차입금	0	136. 판매수수료	0	156. 장입금	0
(134) 장기자산	2,291,980	140. 차입금	0	137. 판매수수료	0	157. 장입금	0
(135) 장기자산	2,291,980	141. 차입금	0	138. 판매수수료	0	158. 장입금	0
(136) 장기자산	2,291,980	142. 차입금	0	139. 판매수수료	0	159. 장입금	0
(137) 장기자산	2,291,980	143. 차입금	0	140. 판매수수료	0	160. 장입금	0
(138) 장기자산	2,291,980	144. 차입금	0	141. 판매수수료	0	161. 장입금	0
(139) 장기자산	2,291,980	145. 차입금	0	142. 판매수수료</			



작로부터 崔浩澤·李英熙·金淑子·朴鍾鎬·정수민, 등문



최로부터 李英熙·李經鎬·朴鍾鎬等문

전직 동문 대통령·국무총리 등 재미동창회 발전 위해 소장품 내보

재미동창회(회장 박종현)는 오는 5월 21일 워싱턴DC 메어비유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제14차 정기총회를 홍보하기 위해 李英熙(성년 59-63) 수석부회장·朴鍾鎬(성년 56-60) 의장·정수민(성년 60-64) 이사 등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지난 3월 2일부터 일주일, 서울을 방문, 본

회와 모교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 대표단은 3월 3일 본회 사무처를 방문해 총장과 임원진과 실무부를 의논하고, 오후에 모교 관계자와 역대 재학생들의 미주 순회공연에 대해 협의했다. 또 鄭鍾鎬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10월 16일 홈커밍데이 겸 동산대제에 참석하는 미주 동문들을 위한 준

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며 국내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을 만나 재미동창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고 사명을 구했다.

대표단이 만난 대부분의 동문은 재미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격려하는 뜻으로 여러 종류의 소장품을 기증했다. 특히 수석(출학 47-51) 한대통령은 휘호를, 李經鎬(출학 46-50) 여사의 金刀가 서거전 도자기를, 金鍾鎬(사회교육 46인)

전국무총리는 미술작품 1점씩, 南炳熙(대학원 56층) 전국무총리는 소장품 1점씩, 盧允鶴(성지 53-57) 전국무총리는 화호를, 李會昌(법학 53-57) 전국무총리는 금박 미술품, 李東東 전국무총리는 소장품 1점씩, 李會成(법학 56-61) 전국무총리는 중국 동양화 액자를, 高建(성지 56-60) 전국무총리는 소장품 2점을 각각 기증했다. 또 모교 이사 朴永席(회화 54-62) 명예교수는 동양화 작품 한 폭을 기증했다.

李英熙 수석부회장은 "이번에 기증 받은 귀중한 작품들은 5월 20~22일 열리는 재미동창회 회원 가운데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지 재미동창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1만명이 넘는 동문들로 조직돼 있으며, 매월 동창회지를 발간해 6천여 동문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별히 5월에 열린 평의원은 본회 金永澤(법학 56), 李永澤(법학 56)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모교 鄭鍾鎬 총장과 교수들을 초청해 鄭鍾鎬 교수 초상 장엄회(5월 19일), 박약관 브리핑 및 소상기 후회(미국 교육 68인) 동문과 함께 하는 잔치(5월 20일), 평의원회 및 만찬(5월 21일), 관공제회 및 대회장 趙英男(법학 56)의 음악공연(5월 22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넬피어 사자) 동문을 선출했다.

이번 부회장에 李永吉(영동기법 회장), 宋德熙(세무계 대표), 李永吉(출산과 교수), 朴鍾鎬(국본회 이사장), 鄭德熙(재학 56인), 李永吉(대주), 鄭德熙(상정학기술원 전무) 등을, 감사에 金永澤, 총무에 金永澤을 선출했다.



작로부터 朴明根·李吉女·文太俊·朴永澤等문



李吉女회장이 본회 林光洙회장(右)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의과대학

새 회장에 河權益동문 선출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학운대상 시상식 및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李吉女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동창회는 학운대상 건립을 비롯해 학운대상, 장학금의도상 등 여러 의학상을 제정해 동문들의 의료활동과 업적을 알려왔다"며 "지난 10년간 동창회를 믿어 주신 분 많았기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李吉女회장님께서는 우리 동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학운대상 건립에 많은 힘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총동창회 부회장으로선 정학사업의 증대와 동문사회의 화합을 위해 누구보다 큰 관심과 성정을 기울여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학운대상 시상식을 통해 사회과학부문에 대한의사회와 文太

俊(의학 44-50) 명예회장, 의료봉사부문에 서종발원 박永興(의학 58-64) 이사장, 학술연구부문에 석사스 수탁제 차명(의학 56-60)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본회 林光洙회장과 호일재단 李永興(경지 48-53)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동창회 발전에 공헌한 皮可美(의학 61-67)·李慶熙(의학 66-72)·朴永興(의학 67-73)·吳秉熙(의학 71-77) 동문과 서문사 영동포교회를 비롯한 8개 지회, 및 10-11·12-13-32회 동회기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소개된 호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제25대 회장에 우리들 병원 河權益(의학 57-63) 명예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회장은 "전임 李吉女회장이 일구어 놓은 업적이 누가 되서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젊은 동문의 참여 활성화와 학생 장학사업 등 생가 있는



河權益회장

동창회 운영에 수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회장은 송근관대 외대 교수, 삼성서울병원장, 용지대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본회 의과대학동창회는 동창회의 난 행사, 학술행동 지원, 후원금 부 제자, 지도자 유망대학, 각종 의학상 시상 등 사업계획에 따른 총 2억8천5백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상근관대 柳永赫(의학 41-47) 이사장, 인제대인 李秉熙(의학 44-51) 이사장, 동아제약 姜信浩(의학 48-52) 회장, 朴永興(의학 51-57) 명예회장과 원장, 모교 鄭鍾鎬(의학 73-79)의 회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南)

알림

2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6월 19일 (일) 모교서 개최

친목과 인형의 장이 될 제2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는 오는 6월 19일 개최된다. 주안이 라지 모교 권대소 동아리하고, 산·후배 동문들과 함께 멋진 대국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05년 6월 19일(일) 09:30~17:00
- ◇장 소: 서울에 중앙일보 종합체육관
- ◇참가대상: 서울대 동문, 교수 및 학원생(나이 75 이상)
- ◇참가비: 참가비는 4만 원(참가비 2만 원, 대회비 2만 원)
- ◇참 형: ① 단식전(경기대별 각 5인)
② 개인전(경기대별 각 5인): OB조와 YB조로 분리
③ 초선(남 6인만 참가), 스위스 리그
- ◇신 청: 2005년 6월 4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 참조(www.snuu.or.kr)
- ◇참 가 비: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1.전일대회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① 프로그램 초창 기념 대국
② 경기결과와 및 관람자를 위한 경품 추첨
- ◇연 락 처: 전화 02-762-2233 FAX 02-763-0555
후대소 일정이야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金妃美 作

시작품 Ring-Earring 목관꽃 Brooch-Framing
Diamond, 750 White Gold, White-Black Pearl.

<작가박력>

- ▲81년 시고 미술계 미술과 입학
- ▲85년 시고 미술계 미술과 졸업
- ▲89년 현재 약 1천 500여 회 작품
- ▲92년 현재 서울대 미술과 미술과 교수
- ▲95년 현재 서울대 미술과 미술과 교수
- ▲현재 7개 대학 미술과 미술과 교수
- ▲95년 현재 미술계 미술과 미술과 교수

치대·HPM동창회 白純之회장 (백순치 치과의원장)

白純之(치의학63-69·HPM 4기 백순치 치과의원장)등이 최근 치과대학동창회와 보건의료정보학회(HPM)동창회 회장직을 동시에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임 白회장은 "두 곳을 동시에 챙겨나가기에 재능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온 것이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감당하기 보겠다"고 밝혔다.

—3기 동창회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서울 중랑고 교우회, 서울대 치과대학 동창회, 보건의료정보학회동창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고 교우회 일도 번차서 치대와 보건의료정보학회동창회 회장직은 몇 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수석부회장 일을 해왔고 신임대원이 '도와줄래나 걱정하지 마라', '일은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법'이라며 부탁하시는데 거절하기가 힘들더군요. 다행히

두 곳 모두 제게가 관해 회장단의 역할은 많이 확실히 돼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형사에 참여하는 동문이 적는데.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경력이 많이 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동창회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지요. 예전에는 치과대학이 서울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구상한 게 있다면.

"그동안 소외된 지방지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근 강릉지부와 대구·경북지부를 다녀왔는데, 동창회

"학생회 지원 통해 재학생과 유대강화"

조기를 제작해 드리면서 그곳 동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외 지부에도 조만간 동창회 조기를 제작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재학생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학생회, 동아리 활동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그밖에 잠시



중단된 학술회의도 열고 소식지도 알선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HPM동창회 운영은 어떻게.

"현재 15기까지 6백50여 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보건복지 관련

고위 공직자나 의료단체 간부들이 많습니 다. 기법 모임이 활성화 돼 있어 동문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동창회 산하에 한국보건정보학회연구원이 있는데 매년 정례학술대회,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연구원으로 커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창회 일이 많아 분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치과의 경우 여악제도가 정착돼 있어 분업과 동창회 일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제 시간을 단 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白회장은 한강 성당 주일학교 교장, 서울치치과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인제대 외과교수로 활동하며 후진 양성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여왕의 정부에 최근까지 한국 여행인플루엔자 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수준급의 스포츠맨 심력을 자랑한다. 부인과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포항지부동창회 洪相福회장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

포항지부동창회는 지난 1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洪相福(금속62-69)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회칙장제에 앞으로 계획과 그동안의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를.

"우리 동창회는 1985년 3월 23일 창립 때 올해가 꼭 20주년이 되는 해이지. 인구 6만여의 어촌도시였던 포항이 이제는 50



"철강신화 창조에 동문들 희생 담겨"

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철강 대기업 포스코의 성장과 철강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오늘날의 철강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우리 동문들의 희생적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동창회는 4백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신임도시 포항에서의 동문들 현황은.

"철강도시 포항이므로 초창기 동문들은 주로 포스코의 신원예군으로 활동했는데, 1987년 포항공과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설립되면서부터 우수 두뇌그룹의 동문들이 대거 포항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금은 포항공과대학 1백36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30명이 있으며 한양대 31명, 포항방송국까지 연 구소 18명, 동국대 12명 등 주로 교수 및 연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밖에 전조제, 의료, 약사 등 에 종사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포항대 재직(학부 54)총장, 李相福(경서 57 61)국회의

원, 한동대 金泳吉(금속60-64)총장, 포스코 姜昌五(금속63-71)사장, 포스코 李鶴澤(금속64-69)회장, 鄭幸福(경서69-73)포항시장 등이 있습니다."

—동창회와의 유대관계도 중요할 텐데 이에 관한 의견은.

"사람 지능·특히 보합지역과 서울과의 거리관계가 지부와 동창회와의 결조 열려제를 원활히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 구체적인 협력 또는 네트워크 매커니즘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로서의 개방이냐 실행에냐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여부에 두어야 하는 만큼 간단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동문소식지의 속간, 동문수첩 업데이트와 직장간의 간 사들과의 재능을 환상시키고 스포츠의 개발 활동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 확보를 위해 해외프랜차이즈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李)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C동창회 金日洙회장 (태라텔레콤 회장)

주인관 권위도 높이고 상급도 지금껏 그 규모를 넓힐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AIC 대상 범위도 동문으로 한정시켜 제 나라 정보통신 방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로 확대시킬까 합니다."

—올해 동창회 활동계획은.

"동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나라를 정례화시키고 동창회



"AIC대상 범위·규모 확대해 나가겠다"

지난 3월 4일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IC)동창회 호장에 취임한 金日洙(AIC 12기 테라텔레콤 회장)동문은 "정보통신 시간이 점차 중요해 지는 시기인 만큼 제 마나를 정례화해 국내 IT산업 정예에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창회 위상 제고를 위해 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동창회를 소개해 주신다면.

"지난 1995년 과정이 개설돼 현재까지 회원수는 제18기 수료생을 포함해 6백40여 명입니다. 구성원들은 정보통신 방송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방송국 고위 관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기수마다 5~10명씩 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금도, 산악 등의 친목동호회 모임과 동창회 차원의 상기모임, 연례학술대회,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

—AIC대상을 신설하셨는데.

"지난 3월 정기총회 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徐炳文(6기)원장에게 옛 AIC대상을 수여했는데, 2회부터는 연현사의 공동

차원의 골간대학을 매년 2차례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관제비 기수 조장들은 자주 만나 활성화를 꾀하고 비록, 금도 등의 동호회 지원에 산을 늘릴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제가 최고의 정보통신 방송 전문가로 구성된 동창회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마나를 개최해마다 최고의 강사를 초빙할 것이며 국내 정보통신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창회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회장은 67년 동국대 무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6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했다. 현재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자인 '텔레콤엔지니어', 텔레콤엔지니어 '소프트웨어'의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미리 대표를 맡으며 부인 안사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南)

우리 사회 윤리, 교육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사회의 의식과 제도를 한 단계 상승시켜야

특별좌담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최근 교육계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특히 대학 입시 부정 사건과 교사 내분 사건, 일진회 폭력 서를 들어 크게 대두되었다. 뒷맛이 씁쓸한 이들 사건들을 통해 우리 의식의 부재와 도덕성의 붕괴라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한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의 원로 회원들이 차 두 2월 자신들을 먼저 제책질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최고대의 의식을 가졌다.

본보는 이들 원로들을 만나 오늘날 잘못된 우리 의식의 회복과 교육문제 등의 해결 방안 등에 들어보았다.

- **金泰吉**(철학46·47 대한민국의학원 회장)상임 공동대표
- **金瑗東**(사회56·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상임 공동대표
- **孫鳳鎭**(영문57·61 동덕여대 총장)상임 공동대표
- **사 회**: **李漢龜**(철학04·08 삼국 관대 교수)집행위원장

사 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 단체들 중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을 소개하고 성숙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들 함께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NGO 중에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은 6가지 행동 수칙을 정해 놓고 회원들이 이를 먼저 실천하면서 그 모범을 보이기에 능조하는 이들에게로 확대해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NGO보다 우리 사회

의 많은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임의 주역을 맡아 오신 사립고대표께서 이 모임의 창립취지부터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吉: 이 모임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도덕성의 붕괴와 윤리의 부재에 있다는 인식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 건전하고 도덕성이 살아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지분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바르게 살기를 먼저 실천한다면 사회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몇몇한 반인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金瑗東: **孫** 대표께서도 성숙한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자기 책임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의식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신 바 있는데,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孫鳳鎭: 이 모임의 구성에 앞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될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 모임을 만드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 다. 결국 우리가 여섯 가지 수칙을 제정, 선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 말에 책임을 느껴 구속되는 自願自縛의 의무감을 갖고 행동에 조심하지는 취지에서 실천 강령과 명문 규율의 당위성을 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 회: 우리 회원들을 스스로 묶는 自願自縛적인 그런 여섯 가지 수칙에 대해 소개

해 문제를 개인의 행위 차원에서 교통신서나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실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 회: 올해로 이 모임이 구성된 지 5년째로 접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사업으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일진회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체적인 교육계의 문제점을 짚어주었으면 합니다.

孫鳳鎭: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지식교육 분야는 대학진학률이나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볼 때 세계 1, 2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실패하는 것도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문제가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답답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가정 사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정세대 책임이요, 지난번 우리가 석고대회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먼저 지키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뜻이고 결국은 청소년들이 저 모범이 된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며 우리가 먼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원칙적 폭력에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정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쾌락을 즐기 위해 만든 폭

력 문화·영화·TV 프로그램 등이 그런 현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정치 관행에 의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 사회에서 잘못을 쉬쉬 숨기며 감추기에 급급하죠. 때론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가령 중·고등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불러내는 이상한 책임전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회상이 어떤 폭력문화를 조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전통적인 문화, 즉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문화인데, 비평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너무 약합니다. 일전에 신장이 약한 아이를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약하다는 이유로 두들겨 때려 그 아이가 고통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명명화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약한 자에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바로 비평의 전통입니다. 일진회 폭력에 강한 아이들이 약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전통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내재해 대한 인식이고 비합당한 것이 또 나쁜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방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문제는 전적으로 가정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 이런 문화에 확대해자는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석고대회를 한 것입니다.

사 회: 성숙한 사회에 대한 설명에서도 만큼해주셨지만 한 인간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는 이성의 계몽에 의해 사재를 자율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성숙한 사회라는



金泰吉회장



金瑗東명예교수



孫鳳鎭총장



李漢龜교수

청소년 문제는 전적으로 어른들 책임 “타인의 권리·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를 부탁드립니다.

金泰吉: 첫째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보호와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공동의 자산을 아끼자, 셋째 교통규칙을 비롯한 기초질서 지키기, 넷째가 청정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요즘 세대를 번영한 것이죠. 앞으로 여섯째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입니다.

사 회: 이 여섯 가지 생활 수칙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념을 표현했다고 보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金泰吉: 그 중에서도 비교적 지키기 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정말 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을 느끼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金瑗東: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열린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상대로 개최하는 '성숙 아카데미'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이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현안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과 좀더 가까이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원만 토론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동참해 의견을 나눠주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를 시작을 했죠. '열린 사회와 윤리'라는 주제로 지난 2월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교육 문제 중 여러 입학 시험 부정사건이 일어난 지점이었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 평가되고 있다는 취지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격월로 연중 5~6회 정도 그때그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 마당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 회: 그 당시 **孫鳳鎭** 대표께서도 **金泰吉** 대표님과 함께 석고대회 참회 의식을 연출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하신 대표모임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들을 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폭력서클인



것은 합리적인 틀이 잘 유지되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 제일 끝쪽에 가까운 부패지수를 가진 우리 사회에 민연한 부패문화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지요.

金壽奎 : 아직 요인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성품은 부패 쪽으로 가파러려는 세력과 부패를 이끄려는 세력간의 싸움입니다. 이는 개인 인연에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로 싸움 싸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를 이끄는 자 하는 세력과 스스로 부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부패를 이끄는 자는 세력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는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이 결국 부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력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세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孫鳳錫 : 우리 의식이 바뀌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제도를 부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범죄에서 변호사가 없었을 당시 부실하게 진료가 이뤄진 것처럼 의료로 같은 질서를 지키게 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가 진단 11월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누구든지 복지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언론인이 국세청에 가면 모든 사람의 소득을 공개해줍니다. 다른 부패를 막는 제도는 없고 단지 이 제도로 부패를 막고 있었습니까. 이처럼 제도와 의식이 함께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 회 :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나 기업에서도 투명 사회, 투명 기업은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金瑬東 : 한 사회의 성숙도 그리고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부패일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부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여러 가지 제도와 구조, 의식 이런 것에서 서로 얽혀 생겨나는 것이 부패입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제도를 고쳐 나갈 수 있게 되고, 사회화를 성공한 사회로서 사회의 구조적인 압력 등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제대로 만들고 구조를 갖추는 나가는 주체는 결국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이 생각을 바로 가져도 세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근저지 시스템의 문제가 사람들의 의식 문제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개선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달처럼 속은 맑은 야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들에게 다가가서 의식을 고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운영하는 미어는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 갖게 하여 국민들이 계몽된 위치에

서 그 주체들에게 압력을 가해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金壽奎 : 우리가 편의상 제도와 의식을 둘로 나누어 말하지만 이 둘은 동시성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방 후 한국의 헌법을 아주 민주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 국민의 의식이 민주화되지 못해 의식이 제도를 따르지 못했든 때도 있었듯이 의식과 제도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孫鳳錫 : 제도를 올바르게 바꾸려는 의식과 동시에 제도를 지키려는 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청탁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응에 대한 엄한 벌금 조치와 신고자에게 상당한 포상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치러졌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당시 선거의 예를 보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선관위에 비리가 생긴다면 언제든 부정은 일어나기 쉬워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어 무당고 있을 당시 지수적으로 공천권이 선관위에 잠시만 걸고 선관위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오늘날의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

해 주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金壽奎 : 우리 사회의 당황을 가시적인 목표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삶의 목표를 부끄러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돈이나 권력, 향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일종의 수단이지요.

돈, 권력, 향락 등과 같은 외적인 가치와는 달리 생명, 건강, 자유, 학문, 예술 등과 같은 내적인 가치는 총량이 제한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얻는 지 추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외적인 가치를만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나마 내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인간이 고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등이 얼마나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적인 세계만이 가치가 지니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력에는 점을 서로가 서로를 깨닫고 나누는 것이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孫鳳錫 : 돈이 산업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양각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결핍된 요소가운데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런 사회적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특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특권을 얻은 자들에 책임을 스스로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전반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것의 기본적이고 당당한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동문들에게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金壽奎 : 저는 사회가 제시한 말씀하신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약간 역설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동문들은 서울대에 대한 애교는 많이 갖고 그것을 너무 길고요 나태하게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불찰할 때 신입생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것은 아주 뻔한 것이나 참나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도 과거가 잘못하면 지구의 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

으로는 애교를 많이 갖되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으로써 자기와 대상이 되고 또 동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해답을 못찾는 비난을 초조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壽奎 : 서울대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아주 모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에 대한 부분들과 사회적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에 대해 동

문 스스로가 한번 정도는 성찰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갖고 교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

우리의 하향을 내세우거나 엘리트임을 주장하는 일도 패배하였지만 우리 스스로를 상정하는 자세를 가리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엘리트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끝나는 안 되게 진정한 엘리트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벌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만큼 국가와 이웃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

孫鳳錫 :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노블한 사람에 오블리주라는 것이 있다는 말인데 달리 보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노블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 출신이라는 것이 결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 는 단언히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진고 싶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할 때도 행동하거나 자기의 특권만 누리면 그것은 사람 노블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순환을 보인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더 겸손하고 조금만 더 자제한다면 사회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 회 : 좋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전진해 가기를 기원하며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자주호기자)



노르웨이, 모든 국민 소득 인터넷에 공개

“제도가 투명사회·투명기업 만들어”

도 그것을 지켜려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로 없는 한 언젠가는 부패는 발생하게 됩니다.

사 회 : 우리 사회의 진로가 산업과 단계를 거쳐 민주화 단계를 이뤘고 지금은 사회화와 민주화를 겸한 선진화 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 발전 방향에 연해서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한 '운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이면 스스로 기여할 수 있을지요.

金壽奎 : 해, 우리 사회는 기술 혁신의 빠른 속도에 비해 사회의식과 가치관, 제도, 법률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즉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고, 경제 실증에 지나치게 국민적 에너지가 쏟아져 한 국가에 대해 불평이 폭발하는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생활이 황폐해지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쉬워지고, 물질적 선진의 속도에 비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군가가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제시할 구성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총독 또는 정치적인 '수령'을 사임되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 모임이 이 해

만년에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자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우주사에 난 기사 내용을 보면 설의 보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소위 고급 가치라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도 서로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그 의미는 좀 소극적인 것인데 반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싫어 왜냐하면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壽奎 : 제도도 그 기사가 봤습니다. 우한의 내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류하고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동체 생활에서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남과 더불어 살 때는 배려와 계급적 질을 말하러졌지만 우선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한 골을 더 나쁘게 적극적으로 남을 도망쳐서 살 때 배려할 수 없을지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패한 결과, 이것이 내해서 참담한 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 회 : 우리 동문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동문기자 회재추천

준비된 자에겐 미래가 있다

“미래부가 뭐하는 곳이야?”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그뿐만. 필자는 방송사 보도본부 미래부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인류에게서 미래부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부서를 두고 있는 조직은 SBS가 유일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부는 정말 뭐하는 곳인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未來’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런 추가질문이 따라 붙을 만하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키는 ‘불연속성의 시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미래(future that has already happened)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미래는 좋은 것들은 나쁜 것인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드러키의 말처럼 미래가 아니라 未來에 얘기가 좀 달라진다. 아직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조만간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일을 미래로 정의한다면 기자로서 구비가 담길 법하다.

SBS가 지난해 9월 제1차 미래한국포럼으로 ‘고령화 충격’을 다룬 배경이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년 뒤 한국에 들어날 미래다. 하지만 이는 결과일 뿐, 고통화는 이미 여기에 와있는 현재 진행형의 미래라는 점이 취재의 포인트가 됐다.

SBS와 객원지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 7개국 해외취재를 통해 방한해 고령화의 장치는 한반도로 전진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1백54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불과 26년, 단연 세계 최고속이다. 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뒤엔 1명이 벌여 1명을 부양하는 인구피라미드의 내역이 발생하고 빠른 뒤엔 이에 한국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다. 국민연금 제정은 정부의 추정보다도 훨씬 빨리 붕괴되고 의료체제도 건터내지 못한다.

개개인인 소득의 50% 가까이 ‘공제’될 기조를 해야 하고 가장까지 해체될 위험에 있다. 더구나 한국의 1만달러 수준의 경제에서 고령화 쇼크를 얻어맞게 된다. 생산인력의 격감과 재정부담의 증가는 한국의 존망을 실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활영할 방법이 없어 ‘미래에서 온 편지’라는 형식까지 빌려가며 대략 ‘이

런 요지로 발표한 미래한국리포트에 대한 반향은 예상보다 컸다. 金權泰보국직무장관은 ‘인구지진(age-quake)’이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밝혔고 李鍾宰 당시 경제부총리는 “그래서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은 10여 년 남짓하다는 것이다”



金相浹
(외교82-86)
SBS 미래부 차장

러려 경종을 울렸다. 李鍾宰 WHO 사무총장은 제내에서 서울까지 올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결국 더듬림이 고령화대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당기에 이르렀다. 미래부가 뭐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고령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은 일자리

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일차의 미래는 또 어떤가? 이런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 올 1월 발표한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였다.

이번에는 배인&컴퍼니와 함께 만든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의 실업률이 정부 공식발표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이대로 가면 2010년엔 일자리가 늘어남은커녕 1백만개가 ‘순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표현장에 로봇을 등장시켰고 ‘노동의 종말’을 저술한 제레미 리프킨을 초청, 20년 뒤엔 블루칼라가, 40년 뒤엔 화이트칼라가 사라질 가능성도 실어냈다. 李鍾宰 국무총리는 강령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수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약속했고 고용률을 정부의 중장관지표로 삼는 등 후속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재풀이는 역시 쉽지 않다. 일자리는 결국 인적 수준의 제고, 즉 교육과 불기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미래학기는 때로에 꼬리를 무는 빠차고 슬기로운 일이다. 하지만 풍운이 감도는 등불이 정세에서 보듯,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미래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미래부의 여언을 정당화해준다.

그런 그룹과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자는 미련하게도 아래의 이런 예리한 질문에는 준비해 놓은 게 없이 살고 있다.

동문기자 회재추천

‘조상제한서’ 몰락 관찰기

기자생활 15년째, 10여 개 출입처를 거쳤습니다. 그중 IMF관계제 돌입이 전, 2년 가까이 출입했던 한국은행 출입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옛 경제철서가 서서히 균열을 보이며 마침내 환란으로 폭발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여정의 관찰자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30대 그룹에 속했던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몰락하면서 ‘조상제한서’로 대표되던 한국금융시스템의 해체과정을 지켜보아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행장과 뽕족들의 낙파와 좌절도 잊지 못할 대목입니다.

동아일보엔 이미 1996년 초부터 경제위기의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당시 추재수 회장과 기사들은 천천히 돌아와보니 추가폭락, 환율급등, 금리상승 등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은 경제위기의 전조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부 기자들 사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에 대한 정보소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출입처로 꼽혔지만 경제위기 전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1996년 초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보실감, 기아자동차, 진로 등 국내 편지 기업들의 최후부도는 한보은행 기자실에서 공식 발표가 되어 당시 출입기자들은 “우리는 기업부담 전권기자”라면서 소소 씩인 용담도 주고받았었습니다. 아울러

지만 긴급한 기사를 대량으로 송고하게 되며 ‘절실기’가 계속하기도 했지요.

당시 은행권 경제위기는 ‘조상제한서’의 붕괴로 요약됩니다. ‘조상제한서’는 조흥(설립 1897년) - 상일 (1899년) - 제일 (1929년) - 한일 (1932년) - 서울 (1959년) 등 우리 은행산업의 이끌어온 5대 은행의 서열순 통칭이었습니다. 한국은행 흡입발령 인사 직후 전임출입기자는 인숙에게 실명 도록 ‘조상제한서’를 잊지 말도록 주문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흡입순 서열을 존중하고 기사에서도 여러 은행의 서열을 나열할 경우에도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관례를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부서는 대년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5대 시중은행 회장과 임원 가운데 절반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행성의 경우 서울대 상대와 반대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

다. 이에 비해 요즘 잘 나가는 신한·하나은행 등 후발 신생은행들은 ‘2부 리그’로 대접받아왔습니다. 추측은행과 국민은행은 새만금유전권 국책은행이던 이유로 진정한 은행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었습니

었지만 5대 시중은행이 망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에 접어들면서 ‘조상제한서’란 국내 은행산업의 질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그룹에 속했던 우성건설이 부도를 내며 관치금융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권산업이었었던 건원이 쓰러지는 등 속한 업체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1997년 1월 한보은행이 넘어지고



洪珍錫
(경제82-88)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장

허위기에는 가이시봉치, 진로 등 국내 국지의 기업들이 부도를 냈습니다. 결국 그 해 11월 IMF관계제도로 개편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이 속속 드러나면서 너들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들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리딩뱅크였던 제일은행은 은행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한국은행 출신을 행장으로 모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1997년 11월 IMF관계로 접어들면서 은행행태의 변화는 단번에 붕괴되고 은행권 역시 극조조각과 명예퇴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수만명의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

다. 2005년 ‘조상제한서’ 가운데 제일은행만 간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보은행로 가장 먼저 원서리를 맞은 제일은행은 뉴브리치캐피탈, 영구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등 두 차례나 주권을 바꾸며 행가의 전복을 피하려다 위해 인건위압압다. 조선원가의 자본한여로 시작된 조흥은행은 신생은행을 거느린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됐습니

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우 리은행으로 통합됐습니

화제의 동문

남양항운 金在鎬 회장

23년간 재일 한국인 지위향상에 힘써

최근 독도문제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년간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在鎬(정정51·55 남양항운 회장)동문은 "최근 盧武鉉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전적으로 동간한다"며 "우리의 역사는 자카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유자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동문은 지난 11·12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일 한국인의 지위향상에 전력을 다해 왔다. 한일친선협회에 원로 파견자 문자를 상정해 한국인 패취자들이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시골날인 절 폐와 교회제을 문제해결에도 큰 공헌을 했다. 최근에는 저일 한국인의 지향점정문 제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의 요소를 '구조' 해오고 있다.

金동문이 어떻게 일본내 한국인 지위문제로 관심을 쏟게 된 것은 재일 교포의 단면의 영향이 크다. "누이동생의 소개로 만난 아내가 재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했다. 아내를 통해 많은 지향교포의 삶은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현재 金동문의 부인(정수자 국사)은 남양주 어주노동자여성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대 내력회의'를 공동대표를 맡아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 활동에 노년을 바치고 있다.

金동문은 한일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등 민간차원에서 관심을 기울려 2001년 일본 문화진흥회로부터 사회문화상과 국화장을 받았다. 또 2003년 12월에는 제7회 미국 국제 학사원 세계대회에서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金동문은 1964년 김진규수로 재직할 때 다문화교류운동을 꿈꾸었던 魏大猷(前대한국도사)연구회(회장)씨와 외가특별대 1백78개 마을에 '마을학교'를 세워 한국농촌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아세아재단과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군립도서관과 민

술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일을 중안TV를 통해 보도돼 지방 단체에 보석관 설립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대 재하사장은 독심한 기독교인으로 기독교평화교회, KSCF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계 복음화 운동에 정열을 쏟았다. 최근에는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국제위원장을 맡아 기독교 운동을 통해 미국·일본·러시아·호주와 민간전선을 도모하고 있다.

"제가 기독교 복음화 운동에 전념하게 된 것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당시 한 공화국을 했던 경험으로 좌익 동지들에게 폭을 행했지만 사형 2시간 전 군인들의 극적인 구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의 일에 공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었지요. 당시 저를 살아 죽이려고 했던 동지들도 신고하지 않고 용서해 줬습니다." 金동문의 이야기는 이따 흥분이 켜진 장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金동문은 마지막으로 "많은 여성은 젊은 후자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비전과 물의 역할이 충실히 있다"며 "후자들은 통일 한국을 기어 품고 아시아의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blesse Oblige

한국청소년연구소 朴明潤 이사장

"사회 기부활동은 부자,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뜻만 있다면 셀러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아닌 서인들이 많지 않은 월급을 쪼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천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평생을 봉급생활자로 살아오면서 모은 1억원을 회갑 때 사회에 환원한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동문은 2009년 그로써 1억원을 보 기부하기 위해 요즘은 매달 연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있다.

朴동문은 94년 회갑을 맞아 기부한 1억원 중에는 보화에 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5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기금에서 매년 보 건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제에서 발표자 중 우수 논문제형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朴동문이 내내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시절 '파인트리클럽'이란 동아리에서 활동을 시작

가정교육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요. 더욱이 자신들의 삶이 바닷해 방관만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고등교육 과정에 '부모역할론'을 넣어 그들이 커서 부부가 됐을 때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혼모도 예방하고 폭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朴동문이 밝히는 사회봉사 영역은 크게 네 가지다. 노력봉사, 지식·기술 봉사, 금전봉사, 현역·상기시중 봉사다. 박동문은 이 네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청소년봉사단체를 이끌고 있고 보건학 박사 신분을 활용, 장애인을 위한



매월 일정액 저축...개인 기념일에 사회 쾌척

하면서부터다. 국제전선, 인차양성,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이단에서 회장을 맡으며 자연스레 봉사자의 삶을 배우게 됐고 65년부터 25년간 UN산하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일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보건·영양·교육·복지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한국청소년연구소(한국청소년개발원)의 초대 제1연구실장으로 임명돼 한국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 등 청소년정책 개발에 전념했으며 한국청소년연구소·한국청소년봉사단과 조대소장을 역임하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열정을 쏟아 왔다.

최근 청소년 폭력문제의 관련, 朴동문은

라디오 방송에서 건강관리 상담을 했었다. 사회·직업도 언제나 허버학교에 가정사로 사정하고 유자 역사 사회에 환원할 예정 이다.

朴동문은 "우리의 삶이란 커 비손으로 왔다가 비손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재산을 소유개념으로 보지 않고 관리개념으로 보면 모든 욕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다 화갑·회호를 맞는 60여 년만 중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1천만명이 각각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면 1천억원이라는 큰 기능이 조성됩니다. 우리 동문부터 이 운동에 동참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南)

건강을 지킵시다

아픈 데 없어도 검진받아야

대한민국 성인은 암과 성인병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급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 4위는 당뇨병입니다. 이들을 합치면 질병으로 인한 총 사망원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매일 암으로 1백74명, 뇌혈관 질환으로 1백명, 심장질환으로 47명, 당뇨병으로 33명이 사망합니다. 즉 대한민국 성인의 대부분은 암과 성인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재 기능을 다하면서 지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암과 성인병을 효과적으로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까? 아님 거라고요? 설마 우리 부모님은 아니겠지 생각하십니까?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등의 성인병은 병행하고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본인이 증상을 느끼는 순간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풀이키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명 치료라 한다고 해도 기나긴 시간, 고통당하기 어려운 비용, 견디기 힘든 고통과 지루/빡빡한 식욕·육체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앓을 조기에 발견하면 원치 않는 지름길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변화를 진단해 제거하면 암의 발생 자체도 자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도 초기에 위험인자를 발견하고 체계적이고 개별화되어 집중관리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면 정상



朴 珍 浩

(외과92-98)

모교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감염관리 교수

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암과 각종 성인병과 대부분의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치료되지만 조금만 늦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래는 진단 시기입니다. 건강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지금 지키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건강위험인자의 관리만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 2112-5500)

나의 건강법

등산·야채잡곡밥·서예로 건강 챙겨

全 遇 舜(정치47 52)원주합동제조 대표

건강의 길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본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이다. 전자는 운동과 의식 주어서 얻어진다.

나는 40대 후반까지는 골프광이었다. 골프에는 필드도 아니고 필알에는 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지만 했다. 그러나 그 인구가 많아져서 부킹하기 힘들기도 했고 경비도 적지 않아서 슬그머니 등산으로 바꾸게 됐다.

와세대대학 한국동원회 산악부의 일원이 돼서 서울근교의 북한산, 관악산을 시작으로 지방의 유명한 산들을 산려했다. 때로는 일본 북알프스에 오르기도 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악부의 회원들이 숨을 빼쳐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엔 외톨이가 돼버렸다. 산행 중에 젊은이를 만나면 동행하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다니는 형편이 돼 버린 것이다.

80세 이후에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등산 혹은 반보행을 하였고 해와 등산도 2년에 한번 꼴로 행하고 있다. 일본은 북알프스, 중알프스, 남알프스, 아리카타카산은 발 안 닿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안

나쁘구나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프랭크 중 교교 피크(5천4백83m)는 2003년 84세 최고령자로 등반에 성공했으며 올해 2월 캄리만자로의 우후우피크(5천8백95m) 등반도 거뜬히 하였다.

우후우피크를 13시간 동안 오르면서 볼 할 보급마시지 않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는데, 이는 매일의 한고행과 아침의 등배운동 그리고 골프 스윙으로 신체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특별한 의식적 생활이다. 16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간다.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밥을 짓는 방법은 이렇다. 15곡 이상의 혼합 곡에 밀치, 생선,

돼지고기, 채소류 입력후에 넣어 20분 이상 짓는다. 그러면 생선까지 푹러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하루 분 정도를 골라서 덜치, 다시마, 새 가지 이상의 야채, 감자, 고구마 등을 찌어 넣고 다시 끓인 뒤에 국수까지 넣어서 또 살짝 끓인 후 그 3분의 1을 평소 분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김밥, 영지버섯, 인삼, 한울 등을 다져서 산용하고 있으며 과일도 빠뜨리지 않



는다.

아침은 선종기와 에어컨 없이 보내고 겨울에는 삼온을 10도에 맞추어 두고 자며 특히 엄격한 예도 아랫도리는 내의 대신 바지로 대신한다. 잠은 잠에 오지나면 평상을 베고와 우러난 매트와 흙이불을 덮고 베개도 없이 베고 8시간 정도 잔다.

다음은 정신건강인데 17년 전부터 거의 매일 오후 2시까지의 한자에 노닐며 옛 한문의 글자 크기로 사서삼경, 제자백가, 화엄경을 비롯한 10여 권서 그리고 수호전, 금병매, 산곡자연의 등을 육필로 찾아내며 난지에 필사하고 지금은 최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동안에는 서상자를 다 읽어버려니 스프레스트 해수되고 마음이 편해져서 시간 가는 것을 모른다.

서울대 가족

文貞奎 남흥건설 회장

장남·차남·사위 '부산 지킴이'로 맹활약

공대 동문 6명...출신 학과는 다양각색

"1960년 처음 부산에 건설협정 소장으로 내려와 보니 이 좁은 한반도 내에서도 이렇게 기후가 온화하고 시원한 바다를 사시사절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후 이곳 부산에서 광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자녀들과 그 가족도 모두 부산에서 살기를 희망해왔습니다."

이렇듯 남흥건설 文貞奎(간혹52-56 부산 지부동창회 명예회장)회장은 50년 가까이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부산지역의 발전과 동문사회의 단합을 위해 헌신해왔다.

文貞奎의 간접합 패문이었을까. 3남1녀 중 장남 文一景(산업80-84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동문, 차남 文允景(토목83-87 남흥건설 상무이사·하모니웨딩타운 사장)동문, 사위 崔世鍾(사회복지81-85 하모니웨딩타운 부사장)동문 가족도 이곳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文貞奎동문과 文一景·文允景동문, 전사계산학과를 졸업한 장녀 文義淑씨를 비롯해 매형 郭三澤(건축51-55 前교과산업개발 회장)동문, 조카 郭承燾(섬유83-87 모교 재교공하부 교수)동문과 文義淑(기계70-74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동문까지 모두 공학계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郭三澤동문의 자녀인 郭鍾燾동문과 郭鍾珠(가정관리81졸 모교 심리학과 교수)동문은 모교에서 보기 드문 남매 교수이다. 여기 경북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장인 故 金恩輝(문학38졸)동문, 며느리 金垠珪(기약97-01 비이온리니스트·남구주대 입학 예정)동문, 조카사위 金昌燾(법학74-78 부산고등간학정 교사)동문과 조카 文秀燾(상학68-72 공인회계사)동문까지 모두 모교를 졸업했다.

"수학과 과학분야에 관심이 많아 처음엔 토목공학과를 지원했으나 결국 건축학을 전



앞줄 가운데 文貞奎동문 내외, 맨 뒷줄 좌로부터 두 번째 崔世鍾, 한 명 건너 文一景, 한 명 건너 金垠珪·文允景동문

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집쟁이 文一景이가 우리 회사의 부족한 토목부문을 보완하겠다고 토목공학을 전공해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允景이도 처음엔 소프트웨어분야로 가길 원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다니더라고요."

지난 1969년부터 남흥건설에 몸담고 있는 文貞奎동문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여자불림사업비를 창간하여 전국제전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며, 인터넷 전라남 장기능회관에서 남흥건설배 경시대회를 여러 번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文貞奎동문'하면 무엇보다 지난 1999년부터 4년간 부산지부동창회장으로 활약하며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부산지부동창회를 '부활'시켜, 임흥공신으로 돌아왔다.

"우선 관악산우호회와 마로니에클럽 등 소

모임을 만들어 동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지난 2000년 제1회 서울대 동문 가족 등산대회 및 아우회를 개최하여 4백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함으로써 부산 지역 동문들을 단합케 하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2001년에는 1박2일로 첫 분화공동체의 밤 행사를 열어 새벽까지 동문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수학·과학에 관한 퀴즈게임과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文貞奎동문은 특히 자신의 건설현장에 文 景동문과 文允景동문이 자주 놀러오는 바람에 두 아들도 자연스럽게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한다.

지난 1992년부터 부산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남 文一景동문은 제52회 기술사 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제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전형적인 학자타입이지만, 文貞奎동문으로부터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가질을 물려받아 대학생활 때운

文貞奎동문의 서울대 가족

장 인
故 金恩輝(문학38졸)

장 남
文一景(산업80-84)

차 남
文允景(토목83-87)

사 위
崔世鍾(사회복지81-85)

며느리
金垠珪(기약97-01)

매 형
郭三澤(건축51-55)

조 카
文秀燾(상학68-72)
文義淑(기계70-74)
郭鍾珠(가정관리81졸)
郭承燾(섬유83-87)

마이트 게임을 지금도 1년에 한 두 번 타대위 교수들과 정기대향전을 펼친 정도로 천목을 다지고 있으며, 제자들과 함께 전국 사립래인경진대회에 출전해 세 번이나 입상하는 등 학생들과 멋진 팀워크를 과시하고 있다고. 차남 文允景동문은 대학졸업 무렵, 과대표로 당시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CEO로 있는 선택 동문들을 찾아가 담당하게 상선서를 받았을 정도로 文貞奎동문의 족신과 사탕가 기질을 물려받았다.

"우리 집엔 공학도가 많다 보니 형제들도, 자녀들도 계산이 빨라요. 다같이 외식 또는 쇼핑을 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적혀 지명하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단재로 해외여행을 떠나도 만사 오케입니다. 제 학창지인 아이들이 부산에서 살고 있어 더 바랄 게 없어요. 다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제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表)

모교 소식

2005학년도 신입생 3천4백42명 입학

鄭총장 “다양성으로 ‘열린 교육’ 지향할 것”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鄭雲燦총장, 李經仁부총장을 비롯한 1백여 명의 교내 인사들을 포함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신임생, 학부모 등 1만여 명과 특별히 일본 동경대 사사키 다케시(佐佐木毅)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5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학사보고, 신입생 인사, 기관장 소개에 이어 鄭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교는 출신지역, 성별, 가정환경, 신체상의 차이들을 다양한 개성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 복지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정원을 줄여 나가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목민의 정신을 발휘하여 부정한 가치지향을 벗어나서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통합하는 자유로운 창조정신을 통해 세계로 뚫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사키 총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은 학생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뛰어난 사람과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대 성악과 朴贊浩교수가 축사를 하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2005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 수시전형 9백78명, 정시전형 2천2백71명, 농어촌특기자 등

정원의 모집 1백95명으로 총 3천4백42명이 입학했다. 단과대별로 의대, 경영대, 미대, 법대, 음대 등이 100%의 높은 등록률을 보였

다. 총 모집인원 3천3백27명(정원과 모집 제외) 중 80명이 등록을 포기해 작년과 비슷한 97.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신입생을 대표해 강호희와 이윤혜 양이 선서를 했다. (사진 좌)

학교 상징 내년 60돌 맞아 개신 마스코트·응원가·휘장 등 통합

모교는 지난 3월 14일 2006년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마스코트, 응원가, 휘장 등 대학 상징물(U: University Identity)을 통합,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상징물의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교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 주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학생, 교직원 등 상대로 ‘U개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U개신사업에 대해 설문 결과별 검토한 뒤 개교기념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새로운 U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996년 모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휘장 등이 비한국적이란 지적에 따라 개정을 시도했으나 교내의 많은 반대로 중단되었다.

U개신위원회 위원장인 李有載(전명77-82)교수는 “U개신사업은 세계 일류대학을 표상하는 서울대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U를 통해 동문과 교내 구성원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사키 총장에 名譽 수여 韓日 교류확대 기여 인정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鄭雲燦총장, 李經仁부총장, 李泰秀대학원장,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등 교내와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동경대 사사키 다케시(佐佐木毅)총장(사진 좌)에게 제101호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李泰秀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다지고 동아시아: 주요 대학들의 학문공동체 결성에 앞장선 사사키 총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를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자로 추천한



다”고 밝혔다.

사사키 총장은 답사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현재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과제”라며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鄭雲燦총장 ‘나와 경제학’ 신입생 대상 강의 펼쳐

모교 鄭雲燦총장이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섰다. 2002년 7월 총장이 된 지 2년 만에 강의에 나선 것이다.

鄭총장은 이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지난 3월 4일 사회대 한강의실에서 ‘나와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16명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했으며, 1학점으로 매 주 목요일 한 차례 강의한다.

이 강의는 모교가 올해 처음 도입한 ‘프레시맨(새내기) 세미나’의 한 과목으로 마련된 것이며, 이 세미나는 모두 67개 교과목이 개설돼 각각 10~15명의 신입생을 정원으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鄭총장의 강의는 신입생 1명이 수강을 강력히 요청해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했다.

鄭총장은 이번 학기에 모두 11번에 걸쳐 ‘나의 대학생활’ ‘교수로서의 나’ ‘세계 속의 한국 경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예정이다.

약학과 徐榮後교수팀 美 ‘젊은 과학자상’ 수상

모교 약학과 徐榮後(제약77-81)교수 연구팀이 한 달여 세계 최대 규모로 학회에서 6년 연속 권위 있는 과학자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수상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녹색상본(BGOG)’에 의한 항산화 유전자들의 분자생물학 세포 내 신호전달 네트워크라는 연구주제를 발표한 나혜경 책임연구원은 올해로 3년째 이 상을 받게 된다. 얼마 전 미국 위스콘신대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李正宰(농생물94-98)동문은 ‘폭스-2 억제제에 의한 대장암 재발’ 연구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방남리대시 출신 유학생인 조이델 분우 씨는 ‘적포도주 항산화 물질의 피부암 억제효과’ 연구로 올해 처음 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2년 9월 유학 온 뒤 석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李)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2명과 지닌해 8월 31일 명예퇴직한 교수 3명이 지난 2월 28일 함께 기념식을 가졌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李承浩교수·국어국문학

59년 모교 국어국문학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프랑스 그르노블 제1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국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프랑스 파리 제7대학 연합교수, 진단학회장, 국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明浩교수·영어영문학

62년 모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영 플대에서 석사,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수련했다. 8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영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앙대 사대 교수, 모교 어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국어국문학

56년 모교 국어교육과 입학, 6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국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언어학연구소 객원교수, 고전문학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영어영문학

63년 전남대 영문학과 졸업. 미하와 이대에서 석사, 조지타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부임, 영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영어교육위원장, 미국 하와이동서문화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불교불문학

61년 모교 불교불문학과 입학, 65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프랑스 그르노블 제1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불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인문대학장, 한국 불교불문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承浩교수·영어학

59년 모교 영어영문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인디애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언어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UCLA 객원교수, 한국인자와 학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지리학

58년 모교 지리학과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뮌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국토문제연구소장, 대한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李承浩교수·수리과학

58년 모교 수학과 입학, 63년 졸업. 미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해석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독일 비테베르크대 조교수, 대한수학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李承浩교수·생명과학

59년 모교 식물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부임, 세포생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캘리포니아버클리대 연구교수, 미국 코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지구환경과학

59년 모교 지질학과 입학, 66년 졸업. 영국 리즈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지질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광산지질학회지 편집위원장, 대한지질학회장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경영학

61년 영남대 상학과 졸업. 영남대 대학원에서 석사, 오스트리아 린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경영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MIT 객원교수, 모교 경영대 학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기계항공공학

63년 조선항공공학과 졸업. 미국 터프츠대에서 석사,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 항공우주공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객원교수,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농경제사학

58년 모교 교육행정학과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필리핀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지역사회개발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필리핀 교육학회, 한국사회교육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농생명공학

58년 모교 축산학과 입학, 62년 졸업. 미위스콘신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유기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위스콘신대 천문연구원, 모교 농생명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생물지명과학

58년 모교 농공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농업보목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농업경영진학회 회장, 충북대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생물지명과학

58년 모교 농공학과 입학, 6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농업기계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농기계학회 회장, 모교 농생명대학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생물지명과학

59년 모교 농공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농촌계획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농촌계획학회 회장,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문학

59년 모교 행정학과 입학, 63년 졸업. 프랑스 파리 제2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법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외부부 외교·상임연구원, 모교 법대 학장, 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李承浩교수·교육학

57년 모교 교육학과 입학, 6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교육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교육학회,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지리교육

59년 모교 지리교육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테네시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4년 모교에 부임, 지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건국대학교 부교수, 한국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화학교육

64년 모교 화학교육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미트모이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 물리화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화여자대 교수, 미일리아대 방문교수, 한국국제지명학회장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체육교육

59년 모교 체육교육과 입학, 63년 졸업. 경북대에서 석사, 군산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현대무용 실기 이론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체육학회(KOC) 부위원장, 올림픽위원회(KOC) 감사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식품영양학

63년 대전대 화학과 졸업. 미오글라호미주립대에서 석사,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조교수로 임용, 영양생화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생활과학대학생 생활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文周泰교수·의학

59년 약학과 입학, 6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독일 뮌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예방약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약학회 회장,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承浩교수·세의학

58년 모교 약학과 입학, 6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물리화학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앙약사의 위촉을 위임, 모교 약대 제약과정장 등을 역임했다.

동 정

수 상

▲**朴英子**(국어교과64-50 세계시
인시낭송문학연
구회장)=최근
International
Writers & Artists
Association
으로부터 2004
년 베스트 프롬 공인상 수상.
▲**李麗蓮**(기세58종 한국청소년도
사재단 이사장)
=최근 15년간
시제를 들어 초·
중·고교 및 군
부대 등에 14만
여 권의 양서를
기증한 공로로 제25회 한국출판학
회상(특별공로부문) 수상.
▲**李在英**(언속58-62 한국과학기
술원 석좌교수)=지난 3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회 한국공
회원원 대상 수상.
▲**安秉萬**(행정60-64 한국대외 총
장·한국대 학총
장겸 회장)=지
난 3월 9일 한
국외대 용인캠퍼
스 무렵홀에서
17년간 헝가리
어 교육과 문화전파에 기여한 공
로로 페렌치 듀르차니 헝가리 총
리로부터 '헝가리공훈 십자훈장'
수훈.
▲**尹鍾龍**(전자62-66 삼성전자 총
괄 부회장)=지
난 3월 9일 서
울 신라호텔에서
페렌치 듀르차니
헝가리 총리부
터 십자공로훈장
수훈.

▲**李承奎**(의화67-73 동산대 교
수)=지난 3월 24일 서울 힐튼로
텔 컨벤션홀에서 다문화학회와 한
국대림이 공동개정한 제1회 워킹
임상의학상 수상.
▲**文昌亮**(정치68-72 중앙일보 논
설주간·한국신
문방송편집인협
회장)=지난 3
월 2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
제외교장에서 삼
성아문재단으로부터 제9회 삼성연
론상(논평·비평부문) 수상.
▲**黃昌錫**(수의72-77 모교 수의하
과 석좌교수)=
지난 3월 17일
건국대학교 새천
년관 국제회의장
에서 상하문화재
단이 수여하는
제16회 상하대상(학술교류부문)
수상.
▲**趙錫哲**(의학77-85 충북대 교
수)=지난 3월
8일 모교 일원
대스 이건의홀에
서 'RUNX3' 리
자를 세겨 최초로 발간한 공로로
제4회 보령의학술상 수상.
▲**柳 津**(열면78-83 울산 화상·
분화 부회장)=
지난 3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
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
식에서 금탑 산
업훈장 수훈.

▲**崔善植**(국문80-87 조선일보 문
렌주임·2대 이·
심장)=지난 3
월 17일 건국대
학교 재건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심화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6회 상하대상(언론
보도부문) 수상.
▲**李相輝**(과화82-86 한국과학기술
원 교수)=지난 3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젊은 공학인상 수상.
▲**張慶興**(경제82-86 영국 케임브
리지대 교수)=최근 경제학의 지
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
오나르도프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
▲**張明宇**(치의학83-89 미국 내브
라스카주립대
석좌교수)=지
난 2월 26일 미
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보철학
회 총회에서 수
많은 석학들을
제치고 영예로운
우수교수상 수상.
▲**姜榮中**(AMP 28기 대교그룹 회
장)=지난 3월
3일 서울 롯데
호텔 크리스탈볼
룸에서 한국능률
협회가 수여하는
2005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孫東昌**(AMP 42기 퍼시스 회
장)=지난 3월 16일 서울 삼성동
교역소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
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鄭錫演**(AMP 51기 현대오트모
대표)=지난 3월 16일 서울 신성
동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
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훈.
▲**金孝澤**(AMP 52기 삼성SDI 사
장)=지난 3월 9일 서울 신라호텔
에서 페렌치 듀르차니 헝가리 총
리로부터 십자공로훈장 수훈.

▲**金鍾憲**(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김포지부
동창회장)=지
난 3월 15일 김
포시 사우동 한
강에식문화원에서
열린 김포시
랑 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 조대
화장에 선출.
▲**嚴世憲**(성무53-57 7교 사장)
=지난 3월 7일
한국삼육산업연
립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에 선임.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
률사무소 변호
사·문화 부회
장)=오는 4월
1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5
대 회장에 취임
예정.
▲**鄭英彩**(수의56-60 가족위생방
역지원본부장·
수의대 동창 회
장)=지난 2월
28일 성남시 서
현동 수의과학학
관에서 열린 대
한수의식 총회에서 제21대 회장
에 취임.
▲**朴相禹**(국사58-64 前총림수산
부 차관·전북대
초빙교수)=지
난 3월 19일 사
단법인 한국여권
연립 총재에 선
임.
▲**韓昇朱**(행정63년 前대교공상
부 장관)=최근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유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泰都**(국어교과60-64 가톨릭
대 교수)=최근
서울한가톨릭교
100주년 기념관
에서 한국문화비
평가협회 회장의
일기를 마치고
한국크리스천문화가협회 회장에
선임.
▲**趙建鎬**(법학62-66 前과학기술
부 차관)=지난 3월 22일 전국경
제인문학 상·부회장에 선임.
▲**韓應朱**(경제67-71 국무조정실
장)=지난 3월
14일 부총리 겸
자정경제부장관
에 임명.

▲**羅素善**(의학67-71 울산의대 교
수·한국여성과
학기술단체총연
합회장)=지난
3월 16일 한국
과학문화재단 제
4대 이사장에
선출.
▲**朴院浩**(법학69-76 김&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지난 3월 5일 용
산인 민족통일운동본부 정기총회
에서 상임대표에 선출.
▲**沈恩雄**(교육70-74 춘천교대 교
수)=최근 춘천교대 제4대 총장에
취임.
▲**辛京珉**(사회71-75 MBC 보도
국장 직무대행·
본보 논설위원)
=지난 2월 28
일 MBC 해설위
원실 해설위원에
선임.
▲**李典魯**(전자71-76 한국과학기술
원 교수)=최근 국내 민간
기업 연구자인 LG전자기술훈
장에 추인.
▲**金宗烈**(중문71-75 하나은행 부
행장)=지난 3월 28일 하나은행

▲**金鍾憲**(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김포지부
동창회장)=지
난 3월 15일 김
포시 사우동 한
강에식문화원에서
열린 김포시
랑 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 조대
화장에 선출.
▲**嚴世憲**(성무53-57 7교 사장)
=지난 3월 7일
한국삼육산업연
립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에 선임.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
률사무소 변호
사·문화 부회
장)=오는 4월
1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5
대 회장에 취임
예정.
▲**鄭英彩**(수의56-60 가족위생방
역지원본부장·
수의대 동창 회
장)=지난 2월
28일 성남시 서
현동 수의과학학
관에서 열린 대
한수의식 총회에서 제21대 회장
에 취임.
▲**朴相禹**(국사58-64 前총림수산
부 차관·전북대
초빙교수)=지
난 3월 19일 사
단법인 한국여권
연립 총재에 선
임.
▲**韓昇朱**(행정63년 前대교공상
부 장관)=최근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유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泰都**(국어교과60-64 가톨릭
대 교수)=최근
서울한가톨릭교
100주년 기념관
에서 한국문화비
평가협회 회장의
일기를 마치고
한국크리스천문화가협회 회장에
선임.
▲**趙建鎬**(법학62-66 前과학기술
부 차관)=지난 3월 22일 전국경
제인문학 상·부회장에 선임.
▲**韓應朱**(경제67-71 국무조정실
장)=지난 3월
14일 부총리 겸
자정경제부장관
에 임명.

▲**羅素善**(의학67-71 울산의대 교
수·한국여성과
학기술단체총연
합회장)=지난
3월 16일 한국
과학문화재단 제
4대 이사장에
선출.
▲**朴院浩**(법학69-76 김&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지난 3월 5일 용
산인 민족통일운동본부 정기총회
에서 상임대표에 선출.
▲**沈恩雄**(교육70-74 춘천교대 교
수)=최근 춘천교대 제4대 총장에
취임.
▲**辛京珉**(사회71-75 MBC 보도
국장 직무대행·
본보 논설위원)
=지난 2월 28
일 MBC 해설위
원실 해설위원에
선임.
▲**李典魯**(전자71-76 한국과학기술
원 교수)=최근 국내 민간
기업 연구자인 LG전자기술훈
장에 추인.
▲**金宗烈**(중문71-75 하나은행 부
행장)=지난 3월 28일 하나은행

▲**金鍾憲**(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김포지부
동창회장)=지
난 3월 15일 김
포시 사우동 한
강에식문화원에서
열린 김포시
랑 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 조대
화장에 선출.
▲**嚴世憲**(성무53-57 7교 사장)
=지난 3월 7일
한국삼육산업연
립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에 선임.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
률사무소 변호
사·문화 부회
장)=오는 4월
1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5
대 회장에 취임
예정.
▲**鄭英彩**(수의56-60 가족위생방
역지원본부장·
수의대 동창 회
장)=지난 2월
28일 성남시 서
현동 수의과학학
관에서 열린 대
한수의식 총회에서 제21대 회장
에 취임.
▲**朴相禹**(국사58-64 前총림수산
부 차관·전북대
초빙교수)=지
난 3월 19일 사
단법인 한국여권
연립 총재에 선
임.
▲**韓昇朱**(행정63년 前대교공상
부 장관)=최근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유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泰都**(국어교과60-64 가톨릭
대 교수)=최근
서울한가톨릭교
100주년 기념관
에서 한국문화비
평가협회 회장의
일기를 마치고
한국크리스천문화가협회 회장에
선임.
▲**趙建鎬**(법학62-66 前과학기술
부 차관)=지난 3월 22일 전국경
제인문학 상·부회장에 선임.
▲**韓應朱**(경제67-71 국무조정실
장)=지난 3월
14일 부총리 겸
자정경제부장관
에 임명.

▲**羅素善**(의학67-71 울산의대 교
수·한국여성과
학기술단체총연
합회장)=지난
3월 16일 한국
과학문화재단 제
4대 이사장에
선출.
▲**朴院浩**(법학69-76 김&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지난 3월 5일 용
산인 민족통일운동본부 정기총회
에서 상임대표에 선출.
▲**沈恩雄**(교육70-74 춘천교대 교
수)=최근 춘천교대 제4대 총장에
취임.
▲**辛京珉**(사회71-75 MBC 보도
국장 직무대행·
본보 논설위원)
=지난 2월 28
일 MBC 해설위
원실 해설위원에
선임.
▲**李典魯**(전자71-76 한국과학기술
원 교수)=최근 국내 민간
기업 연구자인 LG전자기술훈
장에 추인.
▲**金宗烈**(중문71-75 하나은행 부
행장)=지난 3월 28일 하나은행

▲**金鍾憲**(법학52-56 북한연구소
이사·김포지부
동창회장)=지
난 3월 15일 김
포시 사우동 한
강에식문화원에서
열린 김포시
랑 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 조대
화장에 선출.
▲**嚴世憲**(성무53-57 7교 사장)
=지난 3월 7일
한국삼육산업연
립회 정기총회에
서 회장에 선임.

▲**李世中**(행정53-57 현대합동법
률사무소 변호
사·문화 부회
장)=오는 4월
1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5
대 회장에 취임
예정.
▲**鄭英彩**(수의56-60 가족위생방
역지원본부장·
수의대 동창 회
장)=지난 2월
28일 성남시 서
현동 수의과학학
관에서 열린 대
한수의식 총회에서 제21대 회장
에 취임.
▲**朴相禹**(국사58-64 前총림수산
부 차관·전북대
초빙교수)=지
난 3월 19일 사
단법인 한국여권
연립 총재에 선
임.
▲**韓昇朱**(행정63년 前대교공상
부 장관)=최근 2014년 평창 동계
올림픽유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金泰都**(국어교과60-64 가톨릭
대 교수)=최근
서울한가톨릭교
100주년 기념관
에서 한국문화비
평가협회 회장의
일기를 마치고
한국크리스천문화가협회 회장에
선임.
▲**趙建鎬**(법학62-66 前과학기술
부 차관)=지난 3월 22일 전국경
제인문학 상·부회장에 선임.
▲**韓應朱**(경제67-71 국무조정실
장)=지난 3월
14일 부총리 겸
자정경제부장관
에 임명.

주주총회에서 제3대 운영장에 선임.

▲**金鍾培**(산업74-78 SK텔레콤 사장)=지난 3월 17일 한국스마트즈협회 제2대 회장에 선임.



▲**宋熙永**(영문74-78 조선일보 출판국장)=지난 3월 17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權台仙**(영어교육74-78 한겨레 신문 편집국 부국장)=지난 3월 26일 한겨레 신문 주주총회에서 차장간 17건만에 첫 여성 편집



국장이 취임.

▲**趙奎烈**(법학75-79 주재네바 차석대사)=지난 3월 15일 세계 무역 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 차기 의장에 선임.



▲**金鍾浩**(문학76-83 前중앙일보 논설위원·평지대 교수)=지난 3월 22일 국정정보처장에 임명.



▲**金永俊**(무역77-81 금융노조 정책위원장)=지난 3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



▲**文愛理**(의학79-83 덕성여대 교수)=지난 3월 1일 덕성여대 93대학과장에 선임.



▲**崔龍元**(경영88-92 동동석약 부사장)=지난 3월 11일 광동제약 사장에 선임.



▲**崔吉洵**(AIP 21기 금융전력 대표)=지난 3월 9일 한국전기신문 주주총회에서 제10대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韓行秀**(ACAD 14기 대한주광공사 사장)=지난 3월 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열린 아시아인대3중·나이에슬론연맹 합동총회에서 임



기 3년의 회장에 취임.

▲**韓奎鉉**(ACAD 55기 대한석유 대표·한국강화프로그래밍회 명예회장)=지난 2월 28일 한국 프라닉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장에 선출.



▲**李海元**(공정49-53 공동체사회 포럼 회장)=지난 3월 22일 서울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이화여자대 57-61) 명예교수를 초청, 제37회 남북강연회 개최.



▲**韓都濬**(사회교육49-53 前새한신문 주간·싸이브라이 한남집 대표)=지난 3월 25일 결혼 60년을 맞아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회식 개최.

▲**李海熙**(행정51-55 석오 이농농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3월 13일 서울 초산 공원에서 石岳 李東寧선생 65

주기 추모대전 개최.

▲**權五瑞**(법학53-57 동아일보 21 세기평화지단 이사장)=지난 3월

1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일보 아사히신문의 외파비 야 요시카미 논설주간과의 대담을

뒤에 '한글과 일본글' 출판기념회 개최.

▲**李金器**(약학55-59 인공제약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3월 18~30일 경남 대서에서 국제 제약업계 '길진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

한 김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載範**(화학56-60 서울에코 신기장사)=지난 3월 18~30일 서울 신철정 건축아트홀에서 2005 부활절 기념 '예술의 혼신 -김재범 신암교백전' 개최.

▲**韓鍾基**(사회57-61 원광대학교 교수·독도학회 회장)=지난 3월 23일 서울 4·19 혁명기념관에서 '독도 침략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鄭元植**(생물교육58-63 前한국교원대 총장·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락회장)=지난 3월 22~23일 천안 상로리조트에서 전국 과학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金芝希**(응용미술59-63 대구가톨릭대 교수)=지난 2월 22~27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정년기념 작품전 개최. 또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마산 대우

백화점 갤러리에서 다국어로 역시

관 건립 지원을 위한 상모미술작품전 개최.

▲**卞柱仙**(영어교육59-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분회 부회장)=지난 3월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매달터에서 '봉거로 본 한국아동실태 2004' 출판 및 보고회 개최.

▲**徐載寬**(문대원66-68 前인명가발 대표·불양화가)=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하나로갤러리에서 개인전 개최 예정. ☎(031-711-7463).

▲**金勳東**(문학63-69 수원예술회

장)=지난 3월 4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수원예술인 100년' 출판기념회와 함께 100년 작품전 개최.

▲**成相哲**(의학67-73 모교 병원장)=지난 4월 1일 모교 연김캠퍼스 삼성암원 공동 이천회관에서 대한의원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포식 및 '근대의학의 상종 대한의원 고관' 심포지엄 개최.

▲**玄在喜**(가악72-76 세종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8일 서울 예술동서 리미팔레스홀에서 세종대 제자들로 구성된 '세

현희'와 함께 앙상블의 판 행사 개최.

▲**金慶廷**(조소75-80 조각가)=지난 3월 19~28일 李現廷(회화76-80 동양화가)등문과 함께 서울 예

술의 전통 한국화미술관에서 열린

2005 KPAK Korea Professional Art Mill)미술제에 출품.

▲**趙倫鎭**(가악75-79 황태극장사·바이올리니스트)=지난 3월 13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리스트 柳南鎭(가악82를 명지대 강사)등과 함께 소리를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朴寶璽**(가악84-88 피아프오르간 연주자)=지난 4월 1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베토벤, 바흐, 프랑크, 비도르 등의 작품으로

피아프오르가 연주회 개최.

▲**馬相哲**(서양화89-93 남서울대 강사)=지난 3월 11~16일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KARMA 작품으로 제5회 개관전 개최.

▲**오유진**(가악89-93 결속대 가사·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연세아트홀에서 챔스트

서열아 씨, 피아니스트 김성이 씨와 함께 유나 트리오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 **학**

동정호관 5층 관악홀에서 호곡을

발원 동분.

*최/석(가악87-91)·정원 씨

=4월 23일 14시.

*박재현(연아88-94)·이 현 씨=

4월 30일 12시 30분.

*이상원(윤리교육95-99)·김주연

씨=5월 5일 14시.

*이재형(생명과학여대)·김성근

씨=5월 7일 15시 30분.

*최태주(식물91-98)·김래미 씨

=5월 14일 14시.

동창회보를 읽고

동문 목소리 담은 지면 늘렸으면...

사실 동창회보는 동창회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비록 봄봄하는 아니지만 대중 읽어보면서 동창회보라는 것이(다른 학교의 동창회보도 유사하거) 대체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클릭률 많이 사용하는 등 여러 면에서 번듯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변화를 필요로 한다. 느낀 이른다. 동창회보는 일종의 소식지와 전문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매체이다.

즉, 동창회보 성원들의 근황을 알려주고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내가 졸업한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졸업한 학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하는 소속의식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동창회보의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신문들은 대부분 인터넷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성이 대단히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매체로 전달되는 신문의 경우 아직은 상호작용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동창회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동창회보를 읽고'란 경우 상호작용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일반 동창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다양한 필자들을 섭외해서 상호작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잡지 형태로 바꾸자는 의견은 꽤 수렴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

해서는 인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계속해서 인쇄물 형태로 발행된다면 굳이 신문의 형태로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잡지의 형태가 되면 우선 보존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신문은 한번 읽고 버린다는 게



李在鎭

(신문83-87)

한양대 신학과 교수

넘어 강한 반면 잡지는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지난 호를 뒤적거리며 읽어볼 수도 있다. 아울러 잡지는 그 분량을 조절하기가 쉬워 좀 더 심층적이고 시리즈 형태의 기사들을 실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실재적이고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신문의 상호작용성을 강화하고 보존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서 동창회원들의 소속감을 고양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변화는 꾸준히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과정 소식도 많이 실어주세요

2002년 가을, 처음으로 동창회보를 접하고부터 지금까지 우체통에 꽂혀 있는 회보를 들고 들어갈 때마다 자랑스러움과 애석함이 함께 했다. 원지 사이트 지역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패다운 패딩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 과정에는 서울대 졸업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은 출신 학교가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회칙엔 서울대 동창회원의 자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예상대로 특별과정을 수료한 우리의 회원자격은 준회원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AIC 총동창회는 뒤늦게 가입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받아보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까지 동창회 소식을 제공하고 있는 줄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재직 2백99명 국회의원 중 47.8%인 1백43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동창회보를 읽으며 알고는 놀랐다. 역시 서울대인의 지력과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초에 실린 화려한 명성과 경력들은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선택받은 소수인에 틀림없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보다 배후는 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분지배에서는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웹사이트와 Noblesse Oblige 다렉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다. 평소엔 내가 존경하던 분이 이 지면을 채우고 있을 때는 '역시 서울대인이구나!' 하는 존경심과 함께 감동스럽고, '이런 호여는 해당기사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대신하며 비록 있을 때는 상망스런기 그지없다. 혹시 이곳을 채울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AIC과정에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내년 김여 평정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IC) 총동창회를 소개할까 한다. 현재 18기까지 수료했으며 회원 6백49명 전원이 가입하여 친목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엮어



朴慶淑

(AIC 871)

리얼티 코리아 대표

가고 있다. 정부부처 18%, 공기업 15%, 언론방송 6%, 기업체 59%, 국회 1%, 교육기관 1%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동창회보에서 우리 과정에 대한 소식을 품은 단신이나 행사 개회 정도만 볼 수밖에 없어 약간은 섭섭하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낀 적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찾아와 주고 찍은 사진 자료를 보내오기도 해서 고맙게 여기며 위로를 삼기도 한다.

우리 AIC과정 외에도 다른 특별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동창회보에서 각 과정들을 릴레이 독립으로 다뤄 모든 독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